



서울대 同窓會 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1년 7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80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재미동창회 평의원

(사진설명 5면)



美大陸의 서울大人을 하나로 묶는다!

만든 사람 :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5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은 세계 공산품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세계 공산품수출시장 점유율이 25%를 넘어 「세계의



키면서 격렬한 대결이 계속됐으나 철벽처럼 단호한 대처의 「법대로」 앞에 탄광노조측은 마침내 「무조건 파업중지」로

손을 들고 만다.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는 엄청났으나 이 사태는 바로 파업만능풍조가 꺾이면서 「영국병」이 치유의 길로 접어드는 역사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중병을 앓던 영국경제도 그때부터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서고 물가상승률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필자가 영국특파원으로 있던 80년대 말에도 가끔 노사분규가 있긴 했으나 옛날 같지는 않았다. 정부개입 없이도 초기에 노사간 대화로 원만한 타결을 보거나 산업재판소 같은 독립적 중재기관을 활용하는 등 분쟁해결이 점차 제도화돼 가는 분위기였다. 결국 영국인들은 오랜 격동과 시행착오 끝에 노사공멸이 아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실제 체험으로 터득함으로써 망국병의 늪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 세대 전의 영국이야기를 여기에 적어 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노사현장이 너무도 살벌하기 때문이다. 노(勞)든 사(使)든 정(政)이든 어느 한 쪽을 비난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나라가 그 나라를 닮은꼴로 답습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 화염병과 최루탄의 악순환에서 우리도 하루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본보 논설위원)



南仲九
동아일보 이사

84년 3월 탄광노조의 전면파업이다.

그로부터 장장 1년. 광부-경찰 쌍방 사상자 속출, 광부 9천5백명 연행 또는 구속, 탄광부귀 노조원을 태운 택시운전사 살해사건 등이 얹히고 설

동문칼럼

고층 아파트는 팬창일까?

오래 전 텔레비전의 외화 중 UFO를 다룬 시리즈물이 있었다. 그 중 어떤 고층 아파트에 사는 믿을 만한 부부가 계속해서 그에 관한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 공군 특수팀이 조사를 벌여 나온 결론이 그들이 고층에 사는 바람에 생긴 착시 현상이더라란 내용이 있었다. 물론 그 결론은 잠정적인 것이었고, 공식적으로는 미확인으로 남게 되었다. 드라마로 꾸뻘었지만, 실화에 가까운 구성이라 그럴 듯하게 본 기억이 난다.

전주 우석대 김두규 교수에 의하면 이런 현상을 「시크 빌딩 신드롬」(Sick Building Syndrome)이라 하며 서구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사회 문제화되었다고 한다. 그 증상은 두통, 현기증, 불면증, 신경통, 눈의 만성적 피로와 충혈 등이라 하는데, 한겨레신문 1997년 10월 18일자 경북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18층 주민은 14~15층 주민에 비해 공포감은 3배, 불안감은 2배, 혈압은 1.8배, 맥박 수는 4배까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고층 아파트 거주자나 고층 빌딩 근무자는 불안 신경증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고층 건물은 풍수적 주거 조건에 맞을 수는 없다. 하지만 풍수가 성행하던 시대에 고층이란 개념이 있지도 않았거니와 실험 대상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영향력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게다가 짐작컨대 조사 대상자들은 고층 거주가 일전했을 것이고, 고층에 대한 인식 또한 회의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며, 학자들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과 혈압은 충분히 높아질 개연성은 있다

고 여겨진다.

필자는 고층 아파트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실은 살아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사는 것을 원치도 않는다. 풍수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고층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런 공포심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속단일 뿐이다. 세대가 다른 우리 집 아이들은 고층 아파트에서 살아보기를 원한다. 간혹 식구끼리 놀러 가게 되면 모텔의 높은 층을 선호하는 경향까지 있다.

우리는 풍수를 옛날에 쓰여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당연히 현대에 맞는 재해석이 요구된다. 아이들은 특별히 고소공포증이 아닌 한, 고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활 환경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다. 10년 전 나는 영월에 살기를 원했다. 고전적 풍수의 이상향이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환경을 못 견뎠다. 모름지기 그런 것이다. 자동차의 폐단이 크다고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자동차 없이는 못살 세상이 된 것처럼 고층 아파트 없이도 살 수 없는 세상이다.



崔昌祚

(73년 文理大卒)
경산대 객원교수·前 里仁지리사상연구회 대표

주요목차

▲건강을 지킵시다.....7면
金裕燦 피부과의원장
▲추억의 창.....7면
金榮又 前KBS 미술부장
▲동문을 찾아서.....8면
간호대학동창회 朴明子회장
모교 朴容眩병원장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 金鍾民위원장

▲화제의 동문.....9면
劉英世치과의원장
▲지부순례.....10면
하와이 지부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13면
魏秀玟(魏英仁동문 차남)
▲SNUA OPINION LEADER18면
모교 의대 朴相哲교수

관악춘추

우리 동창회는 국내 조직확장뿐만 아니라 국제 조직확장에도 노력해 많은 해외지부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지구촌화하는 사회, 국경 없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생존전략이기도 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동창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흐뭇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부로는 재미총동창회를 들 수 있다. 재미총동창회는 그 회원 수나 활동건수, 재정상태, 지부결성 등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해외지부이다. 그 동안 뉴욕의 吳仁錫회장 중심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6월 9일에 열린 제10차(2001년) 전국평의원회를 기하여 시카고 지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평의원회에는 모국의 金在淳총동창회장 일행이 출석하여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축하하였다.

재미총동창회는 현재 등록회원 수만도 6천5백22명이며, 재미동창회보도 발행하여 동창간의 친목과 의사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이 회보

는 6월로 88호를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의 성원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우수한 졸업생들이 미주사회에 동화하면서 지도적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모교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 반갑다.

2000년 6월 10일에 열린 제9차 전국평의원회에서는 「모교와 후진 돕기 100만 달러 기금」 모금을 결의하여 45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이 중 33만 달러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전달하였고, 1만3천 달러를

재미동창회의 쾌거

간호대학에 기증하였다. 미국에서 생활해 본 사람이면 1천 달러가 얼마나 큰돈인가를 실감하고 있을 텐데 1,000배의 기금을 모으고 있어 감격할 뿐이다.

이 100만 달러 기금 모금이 순조로이 이루어져 모교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기금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재미총동창회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모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

에 국가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액수도 미국 일류대학수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부재정의 열악으로 사립대학처럼 동창회 모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서울대학교의 재정 규모로 볼 때, 100만 달러는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 기금으로서 우수한 학생에 대한 미국유학을 장려했으면 한다. 과거에는 미국정부나 재단에서 많은 장학금을 주어 왔으나 이제는 그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유학 비용이 없어 유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미총동창회는 로테이션 원칙에 따라 그 본부가 전국을 순회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더 많은 동문의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재미총동창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바라는 모교 동문들의 뜻을 전하고 싶다.

재미총동창회의 조직과 활동은 타 지역 동창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다. 유럽총동창회, 재일본총동창회, 중국동창회 등도 재미총동창회와 같이 회원 친목과 모교 발전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 외국에 거주하는 동문들에 대한 모교동창회와 모교의 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哲)



모교 의대 車昌龍교수

부인·딸 내외, 두 동서 모두 동문...아들도 재학생 큰 동서 李相洽동문은 연예전문 명PD

무더운 어느 여름 날. 집안 거실 한 가운데 대나무 돗자리가 깔려 있고, 그 위에는 시원한 수박과 참외가 한 상자 놓여 있다. 몇 시간의 정적이 흐르고, 세 개의 방에서 부모와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가 읽고 있던 책들을 한아름 안고 거실로 나온다. 무협지, 잡지, 소설, 만화책...한 손에는 수박을 든 채 저마다 읽은 책에 관해 열심히 설명하는 가족들.

연극의 한 장면도 아니고, 소설 속의 내용도 아닌 車昌龍(69년 醫大卒·모교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동문 가족이 즐기는 「車씨 집안만의 여름 바캉스」이다. 지금까지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가족과 함께 며칠씩 바다나 산으로 휴가를 떠나본 적 없지만, 이들은 나름대로의 소박하고, 남부럽지 않은 휴식을 즐기는 실속파이다.

부인 權善珠(71년 藥大卒·한국스티펄 대표이사)동문을 비롯해 딸 車承恩(99년 生活科學大卒)·사위 李尙國(95년 法大卒·삼성 법무실 부장)동문 모두 모교 출신이며, 아들 車承桓(經營大 4년)군 역시 모교에서 수학중이다. 대개 부모 모두가 의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대를 잇는 것이 보통(?)인데, 이 집안의 두 자녀 중 의학이나 약학을 전공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車동문 내외는 이에 대해 서운한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오히려 자신들보다 한 발 앞서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택한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1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權善珠·李尙國·車承恩·車承桓·車昌龍동문.

녀1남 모두 모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車동문과 權동문 각자의 교육관이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

특히 부인 權동문이 개발한 교육방법 중 하나가 바로 「mommy's time」. 직장인이 되기 전에는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로지 그녀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고, 아이들에게 그 시간에는 어떠한 질문도 금지돼 있다고 알려졌다. 아이들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 알아서 마시게 하고, 어떤 작은 일든 스스로 할 때까지 그대로 놔뒀다. 대신 權동문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어깨 넘어 배운 서예와 독서를 취미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람있게 보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옆에서 서예를 하는 엄마의 모습을 구경하며 따라하기도 하고, 어떤 책을 읽는지 옆에 앉아 같이 보는 등 權

동문은 자신의 취미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한편, 두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을 터득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매니저를 자칭, 분위기를 오피스텔처럼 개조해주는 등 사회인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

반면 車昌龍동문은 연구실에서 수많은 밤샘작업을 하며, 훌륭한 제자를 길러내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바쁜 직업인 이기에 특별히 아이들을 불러 놓고 뭐라 강요한 적은 없었다. 대신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항시 지니라는 말을 해주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동조하는 친근감 있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고교시절부터 한국 UNESCO 소속 「Pinetree」영어클럽과 새벽반 영어학원

에서 외국인 못지 않은 영어실력을 닦은 權동문은 결혼 후, 별 다른 일을 하지 않다 우연히 한국스티펄에서 영어와 약학 분야에 능통한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주저 없이 지원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성취에 앞서, 돈버는(?) 직업이 아닌 교수 남편을 둔 아내로서 남편이 마음껏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 곳에서 일하면 최소한 가정에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도전했던 것이다.

경영에 「경」자도 모르고 사업에 뛰어들 權동문은 처음에는 공부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오히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바람에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權동문은 무엇보다 「주인의식」을 직원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 또한 회사의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내색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사업수완으로 연고제전문 제약회사인 한국스티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가족 중 유명한 동문을 꼽으라면 바로 첫째 동서 李相洽(78년 人文大卒·KBS PD)동문과 막내 동서 李在烈(84년 社會大卒·모교 사회대 사회학과 교수)동문이다. 특히 李相洽동문은 수많은 유명 코미디언을 배출한 연예프로그램 전문가이자 한국 고유의 소리를 안방에 전달하는 「국악한마당」의 명 PD로 방송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그래서인지 문과계통 분야를 전공한 두 자녀와 두 동서가 모였다 하면 車동문 내외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옆에서 이들의 뛰어난 언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제는 자녀들도 다 크고, 사업도 성공시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된 부인 權동문은 앞으로 동반자이자, 말벗이자, 사업 조언자인 남편과 함께 그 동안 못해본 여행을 실행 하고 싶다고 한다. 반면 교수로서의 목표도 달성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車昌龍동문은 제2의 황혼기를 위해 서서히 물러날 준비를 해야겠다며 요즘 「산 좋고 물 좋은」 명소들을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表)

재미동창회 제10차 평의원회의

李龍洛회장·吳興祚수석부회장 선출

회칙 개정...기금운영위원 6명 선임



재미동창회(회장 吳仁錫)는 지난 6월 9일 시카고 Oakbrook Hill Resort호텔 지하 1층 Kensington Court에서 본회 金在淳 회장, 林光洙수석부회장, 宋斗瀨·韓斗鎭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閔相基대학원장, 金基善학생부처장, 裴永洙대학신문 주간을 비롯해 재미 각 지부 평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평의원회의를 개최, 오전 10시 30분부터 7시간이 넘게 회의를 펼쳤다.

吳仁錫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4~5대 집행부를 이끌며 펼친 사업을 소개한 후 『향후 재미동창회가 청장년 회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지 6면 참조>

본회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다른 先見之明을 가지고 靑雲의 뜻을 품고 일찍이 세계인의 경쟁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분은 조국의 앞날을 이끌어 가는 서울대인의 챔피언이며, 변화무쌍한 Global의 물결을 헤쳐나가는 길잡이』라고 말했다. <요지 6면 참조>

모교 閔相基대학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본회 金在淳회장이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 金容學사무총장, 金基泰미주관악후원회 부회장, 시카고지부 金正周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吳仁錫회장이 그 동안 미주지역을 순방하며 동창회 활성화 및 해외 동문들의 결속과 사기를 고취시켜온 본회 金在淳 회장, 宋斗瀨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金容學사무총장의 사업보고, 李慶林재무국장의 결산보고, 각 지부의 현황보고에 이어 안전심의를 통해 뉴욕지부 金榮德(58년 工大卒)·李典九(64년 農大卒)동문, 남가주지부 徐永錫(61년 醫大卒)·全熙澤(64년 醫大卒)동문, 샌프란시스코지부 鄭址善(64년 商大卒)동문, 하

트랜드지부 李校洛(59년 醫大卒)동문 등 6명을 신입 평의원에 추천했다.

제6대 재미동창회 회장에 李龍洛(53년 工大卒)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에 LA지부 吳興祚(61년 齒大卒)전임회장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시카고지부 朴泳圭(61년 農大卒)동문을 선임하고, 나머지 감사 1명은 吳興祚수석부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재미동창회 사무총장에 具環會(65년 醫大卒)동문, 미주관악후원회 부회장에 宋舜英(56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임했으며, 李丙俊(59년 商大卒)명예회장을 고문에 추대했다.

이어 회칙 개정을 통해 재미동창회 100만 달러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고, 운영위원으로 方恩鎬(45년 京城藥專卒)·李丙俊(59년 商大卒)·尹延玉(54년 藥大卒)·金秉洙(55년 商大入)·吳仁錫(62년 法大卒)·任洛均(68년 藥大卒)동문을 선임했으며 위원장 선출과 임기(3년, 4년, 5년제)는 위원회에 위임했다. 또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朴京民(59년 醫大卒), 吳興祚, 方錫勳(61년 農大卒), 白梅(62년 法大卒), 蘇鎭文(62년 齒大卒), 李典九, 李在德(64년 法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具環會사무총장이 내정됐다.

한편 재미동창회 집행부 인선을 통해 총무국장에 金正周(64년 文理大卒)동문, 재무국장에 金賢玉(71년 文理大卒)동문, 출판국장에 丁浩(66년 工大卒)동문, 섭외국장에 張基南(64년 文理大入)동문, 재미동창회보 편집인에 金正守(59년 工大卒)동문을 선임했다.

기타 안전심의를 통해 앞으로 동창회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선출은 Nominating Committee를 구성해서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전·현직 회장인 朴允洙(52년 文理大卒), 姜洙祥(53년 醫大卒), 李丙俊, 吳仁錫, 李龍

洛, 吳興祚동문으로 노미네이팅 커미티를 구성했다.

제11차 평의원회의는 내년 6월 8일 시카고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재미동창회 李龍洛회장: 1953년 공대 기계공학과 졸업, 일리노이대에서 석·박사 학위,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역임,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현재 (주)티이솔루션 기술이사, 시카고 Heat Transfer R&D, LTD. 사장.

평의원 환영 만찬

재미동창회에 금일봉 전달

재미동창회는 지난 6월 9일 제10차 평의원회의를 마친 후 Oakbrook Hill Resort호텔 1층 Prince of Wales룸에서 본회 순방단 및 재미 평의원, 미주관악후원회 이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만찬에서 吳仁錫회장, 본회 金在淳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본회 林光洙수석부회장은 『한민족은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시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 편가르더라는 시각도 있으나 서로 돕는 相生의 순응관계로 보고 싶다』며 『총동창회가 모교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동문과의 가교역할을 다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본회 순방단을 대표해 金在淳회장이 재미동창회 100만 달러 기금 모금 운동에 참여하는 의미로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林光洙수석부회장이 5천 달러를 출연했다. 이날 참석자에게 본회에서 제작한 골프용 기념시계를 배포했다.

한편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이 하트랜드지부 金好元(56년 齒大卒)회장, 뉴잉글랜드지부 尹相來(66년 獸醫大卒)동문, 남가주지부 吳興祚(61년 齒大卒)동문, 徐永錫(61년 醫大卒)동문, 李清光(68년 商大卒)회장, 시카고지부 金正周(64년 文理大卒)동문, 워싱턴DC지부 文成吉(70년 醫大卒)회장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閔相基대학원장의 모교 현황 및 발전 계획 소개에 이어 피아니스트 李昭延(88년 音大卒)동문과 소프라노 李修晶(92년 音大卒)동문이 「동심초」, 「새타령」, 「그리운 금강산」, 「내 사랑의 눈을 뜰 때」 등 가곡과 아리아를 선보였다.

(雙)

2001년 7월 1일자로 재미동창회 집행부 및 회보발행권이 뉴욕지부에서 시카고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본회 金在淳회장, 林光洙수석부회장, 宋斗瀨부회장, 韓斗鎭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閔相基대학원장, 金基善학생부처장, 裴永洙대학신문 주간 등이 순방단을 구성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0박 11일의 공식일정으로 시카고, 뉴욕, LA(남가주)를 방문했다.



시카고 지부

시카고지부동창회(회장 曹大鉉)는 지난 6월 7일 일식집 「Sushi Box」에서 본회 순방단 및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 李龍洛수석부회장, 시카고지부 蘇鎭文·具環會전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부 현황과 평의원회의 준비 관계 등을 논의했다.

이튿날 6월 8일 본회 순방단 및 재미동창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The Mid-America Club에서 시카고 曹永載(72년 商大卒)총영사 주최 만찬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이 曹永載총영사와 金奉珠(79년 師大卒)부총영사, 車光淳(70년 師大卒)한국교육원장 등에게 모교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과 골프

용 시계를 선물했으며, 吳仁錫회장이 재미동창회 로고가 새겨진 T셔츠와 가방을 전달했다.

한편 6월 10일 재미평의원회의 참석자와 시카고지부 동문들이 16개 팀을 이뤄 Willow Crest Golf Course에서 골프대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6시 Korea Garden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샌프란시스코지부 金殷宗(63년 商大卒)회장, 시카고지부 金政吉(67년 醫大卒)동문, 하트랜드지부 金好元(56년 齒大卒)회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林光洙수석부회장, 韓斗鎭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閔相基대학원장, 金基善학생부처장, 裴永洙대학신문 주간 등은 시카고지부 曹大鉉회장으로부터 재미 방문 기념 선물을 받았다.



뉴욕 지부

뉴욕지부동창회(회장 崔澈容)는 6월 11일 일식집 「KIKU」에서 본회 순방단과 유엔대표부 宣陵英(62년 法大卒)대사를 비롯해 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가졌다.

宣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본국 동창회 임원들이 해외지부를 방문하여 세계 각지의 후배들이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극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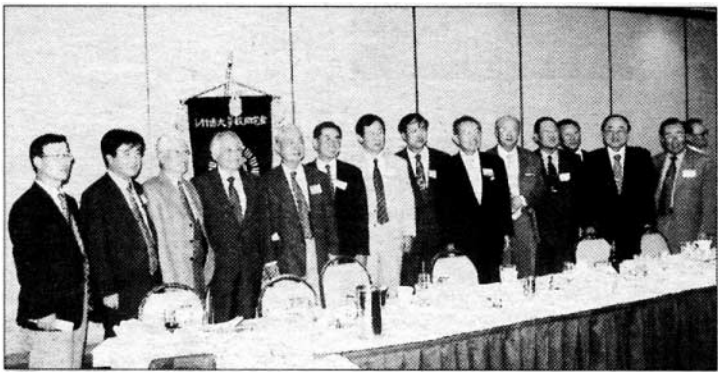
이날 재미동창회 100만 달러 기금 모금 운동에 참여한 宣대사에게 감사장을 증정했으며, 뉴욕지부 평의원들이 순방단에게 기념 선물(도자기)을 전달했다.

다음날 6월 12일 오후 7시 플러싱에 위치한 금강산 연회장

에서 뉴욕지부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韓英恩(63년 工大卒)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은 뉴욕지부 李典九·崔澈容·尹延玉·金榮德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이 뉴욕지부 宋寬鎬전임회장과 崔澈容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100만 달러 기금 모금 운동에 Anchor Donor로 참여한 崔澈容·尹延玉·金榮德·金秉洙·秋載玉(63년 醫大卒)동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재미동창회 金容學사무총장, 金基泰미주관악후원회 부회장, 李慶林재무국장, 李弘承총무국장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남가주 지부

남가주지부동창회(회장李清光)는 지난 6월 14일 본회 金在淳회장, 林光洙수석부회장, 宋斗灝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재미동창회 李丙俊고문, 吳仁錫회장, 吳興祚수석부회장, 모교 閔相基대학원장, LA지부 李清光회장, 任洛均차기 회장, 金知榮총무국장, 趙聖相동문 등이 자리한 가운데 「又來屋」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튿날 오후 7시 30분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2층

Hollywood Wilshire Room에서 成正慶(66년 文理大卒)총영사를 비롯해 지부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순방단 소개와 지부·임원 소개에 이어 본회 金在淳회장이 徐永錫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골프용 기념시계를 전달했다.

재미동창회 李丙俊고문의 건배제로 저녁 식사를 한 후 閔相基대학원장이 모교 현황을 소개하고, 동문 자녀의 유학에 대한 안내를 했다.

재미동창회 평의원 사진 설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⑮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재미평의원의회의 金在淳회장 인사말

〈요지〉

제가 처음 Chicago 同門을 찾았던 것은 5年前이었 습니다. 그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Chicago 大學의 往年の 舊은 名總長 Robert M. Hutchins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나이 또래 - 80 前後 世代 - 에게는 항상 Chi- cago는 知的인 憧憬의 땅이었지요. Chicago大學 總長 인 Hutchins 博士의 great books - 「教育」이란 東西 洋의 古典을 읽고, 그 思想을 吸收하는 것이라고 하는 理論에 心醉하는 젊은이가 世界到處에서 모여들었던 때입니다.

저는 Hutchins 博士와 만나거나 그 슬하에서 工夫한 일은 없지만 그분의 생각에 共鳴하는 바가 많았습니 다. Hutchins 博士는 「改革」에 관하여

• 社會를 改革한다! 그러려면 먼저 어떤 社會가 좋은 社會인가 그 概念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 改革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人間이 만들어 낸 制度의 本質, 目的 그리고 歷史를 理解해야 한다.

• 有益하다고 해서 채택한 改革이 조금도 이롭지 못했던 경험을 사람들은 많이 체험 하였다.

저는 이러한 Hutchins 博士의 말을 회상하면서 바로 오늘의 내 나라의 狀況 - 改革 이란 이름으로 또는 「햇볕政策」이란 이름으로 빚어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생각하면 서 남달라 가슴을 앓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 1960年初 美國에 Kennedy 선풍이 불어 變化의 소리가 요란했을 때, Reinhold Niebuhr 博士-뉴욕 유니온 神學校교수, 1892~1971-의 祈禱는 이러했습니다.

『主여! 變化할 수 있는 것은 變化시키는 勇氣를, 變化할 수 없는 것은 變化하지 않 는 冷靜性을, 그리고 이 兩者를 分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이번에 美國에 계시는 同門을 찾아 祖國에 관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드리는 심정은 바로 Niebuhr 牧師의 祈禱와 같은 것입니다.

敬愛하는 先後輩 同門 여러분! 오늘날 祖國은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經濟도 教育도 社會 풍기마저도, 그 中에서도 政治가 가장 어려운 局面에 있습니다. 政權은 有限하나 政府와 나라는 無限해야 하는데 특히 Ambitious한 金大中 大統領께서 그 동안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고, 이는 任期 中에는 모두 다 해낼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넘어 不安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최근 「Wallstreet Journal」 등이 표현한 것처럼 「살얼음판의 서울」이라고 보 는 이도 없지 않는 狀況입니다.

敬愛하는 同門여러분!

이즈음 세계적으로 베스트 셀러가 되어 있는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Who moved my cheese?」를 읽은 일이 있으신지요.

5, 60쪽도 안되는 작은 책 2, 30분이면 다 읽어버릴 수 있는 간단한 줄거리이지요. 난쟁이(小人)와 쥐의 우화(寓話)-환상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 「갈매기의 꿈-Jonathan Livingston Seagull」이란 우화가 세계적 베스 트 셀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갈매기는 먹는 것보다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들은 자유로운 몸,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다 자유롭게 날아 갈 수가 있거든... 그것만으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갈매기는 말합니다.

베스트 셀러는 그 時代를 반영하지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Who moved my cheese?」는 「갈매기의 꿈-Jonathan Livingston Seagull」과는 대조적으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폐쇄 적인 공간인 迷路에서 살고 있는 두 난쟁이와 두 마리의 쥐가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최 대 관심사는 치즈 즉 먹는 것입니다. 치즈를 먹으려고 미로를 헤매며 치즈를 찾아다닙 니다. 이들은 산더미처럼 많이 쌓인 치즈를 보고 행복감에 가득 찹니다. 먹을 걱정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치즈가 없어졌습니다. 당황한 두 난쟁이는 화가 치밀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두 마리의 쥐도 다시 미로에 들어가 사방팔방으로 치 즈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찻마한 우화 소설이 오랫동안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걱정 없이 지내왔던 직장, 회사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된 신세-세계화, 정보화가 가져온 일대 변화기의 상황입 니다. 그 무엇도 닦할 겨를 없이 먹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미로를 찾아 나서야 하 는 시대상황.

자기의 能力이 무엇인가, 변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다면 새로운 일을 배워가며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치즈의 우화는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를 변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尊敬하는 서울大人 여러분!

분명 時代는 놀랄만한 속도로 變해가고 있습니다. 經濟나 科學技術의 變化는 歷史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으로 막혔던 장벽-國籍이며, 國境이며, 年齡, 性別, 階層, cost 등을 뛰어넘 어 個人이 인터넷을 통해서 直接 온 세계로 프론티어가 一時에 넓어지고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힘이 지금까지보다 몇 배, 몇 乘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美國에 계시는 同門 elite들을 대할 때마다 특별한 輻射線, 또는 電子波의 에너지 같은 것을 感得하곤 합니다. 서울大人은 祖國 앞에 無限責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 이임사

〈요지〉

오늘 이 자리는 미거한 제가 4년의 회장직을 마치는 자리이기도 하여, 그간의 업무보고도 드리고 제 경험 에 비추어 동창회의 앞날을 위해 몇 가지 소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4대, 5대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선임 집행부가 시작한 신규 동문의 발굴, 신 규 지부 결성, 지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러한 조직 의 확대강화와 전국적 차원의 동문간 친목 증진을 위한 월간 동창회보의 질적향상이었습니다. 동창회보는 전 미국에 산재한 우리 동문들을 한데 묶는 울타리, 연결 고리이자 구심력입니다.

이 재미동창회보는 현재 매월 32페이지, 7,000부까지 발행하여 6,500부는 동문들께 개별 발송하고 나머지는 모국동창회, Harvard, MIT 대학, Indiana 대학의 유학생 동 문들, 또 Canada의 Toronto, Edmonton과 Vancouver, 그리고 Guam 등지의 동문들 께 우송하고 있습니다.

또 현 IT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추고 젊은 동문들의 신규 발굴을 위해 web-site "www.snuua.org"를 개설,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web-site에 재미 동창회를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초기 이민 동문이나 유학생 동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 으며, 동문 서로간에 정보교환, 대화의 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web-site 를 통하여 동창회보도 신속히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동창회보 月刊발행을 위한 연간예산 12만불 이상을 포함한 재미동창회 재정자 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에는 「미주 관악후원회」를 출범시키고, 작년에는 동 창회보 구독료 납부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미주 관악후원회는 첫째 1백87명의 동문이 참여하여 \$140,390, 이번 회계연도에는 6월 25일 현재 1백74명의 동문이 \$105,612의 이사회비를 납입하였고 이중 16분이 종 신이사로 참여하시어 \$48,000은 별도계정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둘째 연도 관악후원회비는 일견 첫해보다 저조한 듯 하나 실은 현 집행부 임원진의 참가액을 제하면 2만불의 차이뿐이고 특히 후에 말씀드릴 백만불 모금과 동창회보 구 독료납부 운동과 동시에 병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창회보발간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미주 관악후원회의 성공보다는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운동」의 성과가 더 특이하다고 봅니다.

작년 제9차 전국 평의원의회의 결의대로 「궁극적인 목표는 동창회보 발행 재원 조달은 구독료에서」라는 바탕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4천여 불을 투자, 6개월간에 거쳐 soft- ware를 개발하여 실제로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도 못 미치는 기간 중에 1,185명이 \$60,320(6월25일 현재)를 납부해주시는 결실을 맺었습 니다.

구독료를 납부해 주신 1,200동문은 steady base이기 때문에 계속 읽을거리가 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동창회보 발행을 계속하면 현재 독자 수 대비 20% 납부율을 모국 동 창회보의 30% 납부율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작년 제9차 전국 평의원의회의에서 결정된 「모교와 후진돕기 백만불 기금」운동 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의원의회의 결의 후 여러 동문의 의견을 종합하고 모국의 총동창회와 모교와 협의한 결과, 기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와 운영에 참여하는 동문 그리고 운영제도가 투명하고, 동문들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모금 또는 관리에 유익한 경험이 있는 동문들로 구성된,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반독립적이고 영구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미서울대학교재단을 활성화시켜 활용하는 것이 일등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으나, 선배회장님들이 재미서울대학교재단과 총동창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신 것을 목격한 저로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IRS tax exemption status가 모금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 지부를 위해 group tax exemption을 신청한 마당에 현 정관을 개정하지는 않을 수 없 어서, 재단의 별도조직을 피하고 미국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상조직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도 재미총동창회와 회장 밑에 「백만불기금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25일 현재 이 백만불기금은 1백9명의 동문이 \$570,393을 약정하여 1백8명의 동문이 \$472,393을 적립하였고, \$343,000을 모교에 전달하여, 현재 \$115,743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백만불기금은 저희가 그 동안 계획한 모교와 후진을 돕는 사업, 즉

- 지적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이 일환으로 모교에 영어와 전공분야 강사 파견

- 미국에 온 교환교수와 유학생 동문 지원

- 본국 동창회의 特志장학금 참여 등에 보람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 백만불기금은 일찍이 金在淳회장님께서 재미 동문들에게 당부하신 「一百人 위원 회」의 대동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재미 동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감안하면 백만불기금은 아직 적막이입니 다. 우리 모두가 힘껏 도와 하루속히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도록 기금을 확보 해야겠습니다. 이 백만불기금 모금은 차기 제6대 회장단 임기 중의 가장 큰 challenge 라고 생각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 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동문이 힘을 합쳐 모교에 진 빚을 갚겠다는 각오로 봉사정신 을 발휘하면 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킵시다

피부와 약은 독하다(?)

『선생님, 피부과 약은 독하다고 하는데 먹어도 되나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다. 과연 그런가? 피부 질환의 증상 중 거의 대부분이 가려움증이다. 이 가려움증은 사실 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급히 이 가려움증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여기에 쓰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이다. 그런데 이 약은 환자에 따라서는 졸리고 어지럽다. 그러다 보니 약이 독하다고 여겨 약을 안 먹게 된다. 이 항히스타민제는 실제로 인체에 큰 해가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밀한 일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사전에 미리 인지만 한다면 인체에 큰 해가 될 요소는 별로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알러지성 가려움증에는 이런 졸음 없는 신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이 잘 듣지만 비알러지성 가려움증에는 오히려 졸음을 유발하는 구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더 잘 듣는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약 중 또 다른 약이 부신 피질 호르몬제이다. 이 약은 의료의 각 분야에서 두루두루 사용하는 소위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인체의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역할이 있다. 이런 작용으로 인하여 여러 질병 치료에 이용되는 것이며, 피부 질환도 그 한 예이다. 하지만 이 약은 장기간 사용시 여러 종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약이다. 치료의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과거에는 이 약의 사용 빈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치료약과 치료법들이 발전하면서 이 호르몬제의 비중이 많이



金裕燦(82년 醫大卒)
김유찬 피부과의원장

감소했다. 위중한 피부 질환들 중에서는 이 호르몬제를 사용해야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 약은 생명의 명약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피부과 약에 대한 편견 중 하나가 먹는 약은 독하니 절대 먹지 말고 바르는 약만 바르자 인데 이것이 종종 화를 자초한다.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연고제를 화장품처럼 바르다 피부과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부작용으로 후회막막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자고 만든 의약품법 시대에도 많은 연고제들이 버젓이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처지이다 보니 피부과 환자들은 국민 편의란 명분으로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바르는 연고제를 오랫동안·특히 얼굴에 발랐을 시 나타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피부과를 찾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쉽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연고제들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적절히만 사용한다면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쉽게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

(연락처 : 654-0032)

추억의窓

張 勳학장의 배려로 등록금 면제받아
집판돈 사기당해 대학교수 꿈 사라져

金榮又(56년 美大卒)前KBS 미술부장

古稀도 지난 지금, 나의 인생여정을 되돌아 보면서, 미술대학 미학과 시절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어왔던 시련의 시기였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상과대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셨던 집안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희망했던 미술대학 미학과에 응시하여 합격했다.

푸른 꿈에 부풀어 동송동 캠퍼스에 등교한 지 2개월도 채 안됐을 때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이상의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나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민주」와 「공산」이란 이념대결의 극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생존만을 위한 몸부림, 그리고 90일간의 암울했던 공산치하의 그 악몽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1951년 1·4후퇴와 함께 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따라 1차로 제대한 필자는 전쟁으로 헤어졌던 가족을 찾기에 앞서 부산 송도에 있던 미술대학을 찾아갔다. 판자로 일기설기 지은 사무실에 들어가 찾아온 경위를 설명했다. 이윽고 작고하신 張 勳학장께서 직접 나오시면서 군복차림의 필자를 알아보시고 『이거 김군 아닌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참 기쁘네』하며 반겨주셨다. 張 勳학장님은 필자의 군복무를 치하시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감안해 2학년 복학과 함께 등록금 면제특전까지 배려해주셨다.



좌로부터 金敎滿·劉漢根·필자·金完振동문.

부산 복학시절 재회한 미학과 동문으로는 작고한 前모교 미학과 교수인 白琪洙동문과 劉漢根동문이었다. 세 사람 중 白琪洙동문과 필자는 친척집에 겨우 얹혀 신세지는 백수였고, 劉漢根동문이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터라 차 값, 대포 값은 도맡아 지불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친구는 삶은 기색 한번 보인 적이 없었다.

1953년 9월 28일 정부의 서울환도 계획에 따라 서울대학도 부산에서 서울 동송동 건물로 옮겨왔다. 필자는 부산에서 입학한 52학번 金完振·丁孝鎭·張貞淑·尹民傑동문 등 2년 후배동문들과 같은 학년이었지만, 영화관이 나 대포 집에 갈 때에는 劉漢根동문과 동행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3학년이 된 나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작고하신 朴義鉉미학과 교수님과 아직 건재하신 朴甲成교수님 두 분과 의논한 결과 대학원 진학을 권유받았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학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그 당시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긴 후 매매차익금을 예치해서 찾아 조달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다. 집 팔은 돈을 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사기 당하고 만 것이다. 운명의 여신은 그토록 열망했던 대학교수의 꿈을 무참히도 짓밟아버리고 말았다.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필자는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57년 KBS 프로듀서로 입사, 용기를 잃지 않고 30여 년간 최선을 다해 근무에 충실하며, 명예롭게 정년을 마쳤다. 현재 우리 나라 각 분야에서 미학과 후배동문들의 맹렬한 활약상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지켜보는 한편, 후배동문들의 사회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간호대학 동창회 朴明子회장



제12대 원장에 연임된 모교 朴容炫병원장

“봉사하는 동문 모임 결성에 총력”

지난 3월 24일 간호대동창회 제25대 회장에 선출된 朴明子(56년 看護大卒·前석관중 교장)회장을 만나 동창회 운영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새로 구성된 회장단과 각각 맡게 된 임무는.

『간호대동창회의 특징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나 행사에 불참시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제1부회장에는 俞淑子동문이, 그 외에 金南連·朴寬順·朴良子·李正姬·金彩淑·李愛珠동문이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또한 李仁淑 상임이사가 본회 사무뿐만 아니라 모교 교육연구재단의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기획이사에 姜賢淑·李금라동문, 홍보이사에 金錦順·趙貞淑동문, 장학이사에 金福順동문, 재정이사에 金福子·이금문동문, 서기이사에 朴勝賢·김지현동문이 각각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후배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위해 5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 동창회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모교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해도 여성 동문들이 발전 및 건축기금 모금 운동에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나」보다 「우리」라는 마음으로, 서로 뭉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서로 사랑하며, 이해와 양보의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올해 계획으로는 가을경 동문



단합을 위한 아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학교와 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많은 동문들을 하나로 묶어 가칭 「지도자 역할을 하는 동문 모임」을 결성, 간호계의 현안과 전망에 대해 예견하고 나아가 간호인의 정체성을 사회 곳곳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모교 지원으로는 초빙교수 기금, 국제교류기금, 장학기금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 기숙사를 짓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일조 할 수 있도록 많은 동문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朴회장은 현재 치매센터 기억 되살리기 자원봉사, 임종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가정 방문, 취약 지역 독거 노인과 장애인 복지원에 옷과 음식을 전달하는 등 古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일주일 중 4일은 직접 춘천에 내려가 춘천 시립양로원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表)

“세계적인 연구중심병원 만들 터”

지난 5월 30일 모교병원 제12대 원장에 재선임된 朴容炫(68년 醫大卒)동문을 만나 그 동안 활동사항과 모교병원의 발전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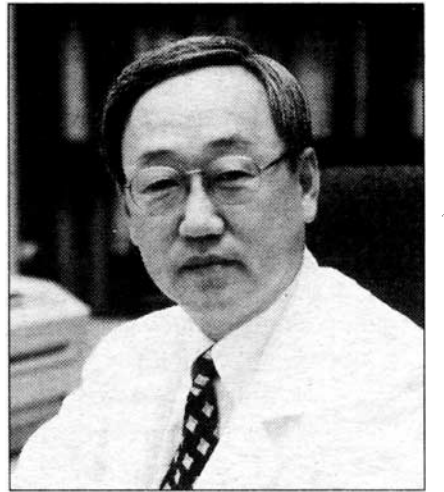
—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원장에 취임한 이후의 지난 3년은 IMF 환란, 의약분업, 수많은 병원의 도산 등 모교 병원을 비롯한 의료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병원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 불친절, 무소신 등 바람직하지 못한 관료주의적 풍토로 인해 경영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변신의 의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 이런 위기감을 모든 직원이 공감해야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같은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 지난 1999년 1월 병원 이념과 행동지침을 새로이 정립해 「국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초일류병원」을 슬로건으로 한 「비전 21」을 제정, 선포하였습니다. 이 같은 모교 병원의 변신을 위한 노력은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져,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많은 사립대학병원들이 이와 흡사한 비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미진한 점이 있지만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권위 있는 외부 기관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 현재 새롭게 구상중인 모교 병원 발전방안은.

『우선 교육 및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공의 교육의 경우, 수준 높은 의술과 덕목을 겸비한 전문의로 육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직원에 대해서는 자질 향상과 업무 효율증진을 통해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



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연구중심병원으로 탈바꿈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수들이 임상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전담의사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질 관리를 위한 Q&A 활동을 확대 강화할 것이며, 환자편의 향상을 위해 「환자 최접점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 현장경영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의 인프라 현대화 및 첨단화에도 주력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의학영상전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을 조기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완성한 연건캠퍼스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설의 현대화 및 첨단화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두산그룹 故 朴斗秉(32년 京城高商卒)회장(本會 創立初代會長)의 4남인 차원장은 현재 대한병원협회지 편집위원장, 대한소화기학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로 활동중이며, 지난 99년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경영혁신대상(병원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金鍾民위원장

“국내 도자문화의 르네상스 이를 것”

한국 도자문화의 전통과 혼이 살아 숨쉬는 경기도 이천과 여주, 광주에서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에 걸쳐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가 펼쳐진다. 이에 이 행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金鍾民(72년 法大卒)위원장을 만나 보았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동기는.

『처음에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는 생각에 제 자신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국제적인 행사로 지역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하고, 특히 문화행정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간다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대변인은 바로 도자기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는 시대별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문화의 존재가 바로 도자기이며, 도자기는 모든 문화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란 단체에 대해.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99년 3월 경기도가 설립한 특수법인입니다. 현재 李姬鎬(50년 師大卒·本會 顧問)대통령 영부인이 명예 대회장으로, 林昌烈(66년 商大卒)경기도지사가 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회 직원은 파견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에 관해.

『이번 행사는 세계 85여 개국으로부터 작품과 제품이 출품되고, 5백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참관할 것으로 기



대되는 만큼 도자예술은 물론 도자산업을 비롯한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발전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자가 세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세계의 도자가 우리를 찾아오는 문화교류의 장이 형성되며, 또한 참여형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이 직접 도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명과 환경 그리고 미래의 메시지를 이번 행사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이천, 여주, 광주에 마련되는 행사장은 이들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부합, 지역적 특성이 부각되고, 도자벨트로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천은 주행사장이자 우리 도자예술과 산업의 세계화 기지로, 여주는 한국 생활도자기의 메카로, 광주는 동북아문화교류의 거점으로 각각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 도자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며,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행사가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세계 최고의 예술품, 세계 최고의 첨단 제품, 각종 첨단 IT기술 등을 보고 즐기며 느낄 수 있도록 행사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화체육부 차관을 역임하고 체육훈장 맹호장, 서울올림픽기장 등을 수상한 金동문은 李敎淑여사와 1남1녀를 두었다.

첫 독창회 가진 劉英世치과의원장

치과의사에서 성악가로의 꿈 실현

모교 「치대 덴탈 오케스트라」결성의 주역

『음악은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입니다. 특히 공연자와 청중, 후원자 등이 삼위일체가 돼야 보다 아름답고, 발전적인 음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성악인들도 서기 어렵다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치과의사 출신으로 지난 5월 10일 독창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劉英世(유영세치과의원장)동문.

66년 모교 치대를 졸업한 劉동문의 어렸을 적 꿈은 성악가였다.

중학교 3학년 시절 길거리를 지나다 우연히 근처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스테파노의 노래 「오 솔레미오」에 劉동문은 흠뻑 매료되었고, 곧바로 가게에 들어간 劉동문은 7~8번을 다시 틀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갈망으로 모교 음대에 진학하길 원했던 劉동문은 그러나 완강한 부모의 반대로 인해 모교 치대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꿈을 버릴 수 없었던 劉동문은 치과대학 내에 음악회 및 그러한 음악활동 모

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합창단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결성한 것이 바로 「서울치대 남성합창단」이다. 그 후 음악감상클럽인 디스크클럽에 회장을 맡으면서 劉동문은 서서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당시 이화여대 음대생들과 조인트 공연을 주선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劉동문으로, 특히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중인 「치대 덴탈 오케스트라」결성의 결정적인 주역이 바로 劉동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의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 바로 「치대 덴탈 오케스트라」의 탄생인 것이다.

그러나 졸업 후 劉동문은 자신의 꿈을 잠시 접어야만 했다. 당시 가정 형편상 경제적인 모든 것을 劉동문이 이끌어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하고도 5년 전까지 劉동문은 모교 음대에 편입, 음악 공부를 하는 괴로운(?) 꿈을 수 차례 꿀 정도로 음악에 대한 자신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劉동문은 레슨을 받기로

결심하고 金辛煥(52년 文理大入·前영남대 교수·성악가) 동문에게서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편 성악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처음부터 劉동문은 전문 성악가도 어려워한다는

canto) 창법을 선택했다. 물론 힘든 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하고자 하는 劉동문의 굳은 결심을 꺾지는 못했다.

성악에 대해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새로운 인생의 참의미를 깨달은 劉동문은 더욱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96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신춘 대음악회」를 통해 전문 성악인들과 나란히 한 무대에 서기도 한 劉동문이 자신만의 독창회를 처음 생각한 것은 벌써 10년 전이다. 그 동안 주위의 많은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劉동문이 미루어 왔던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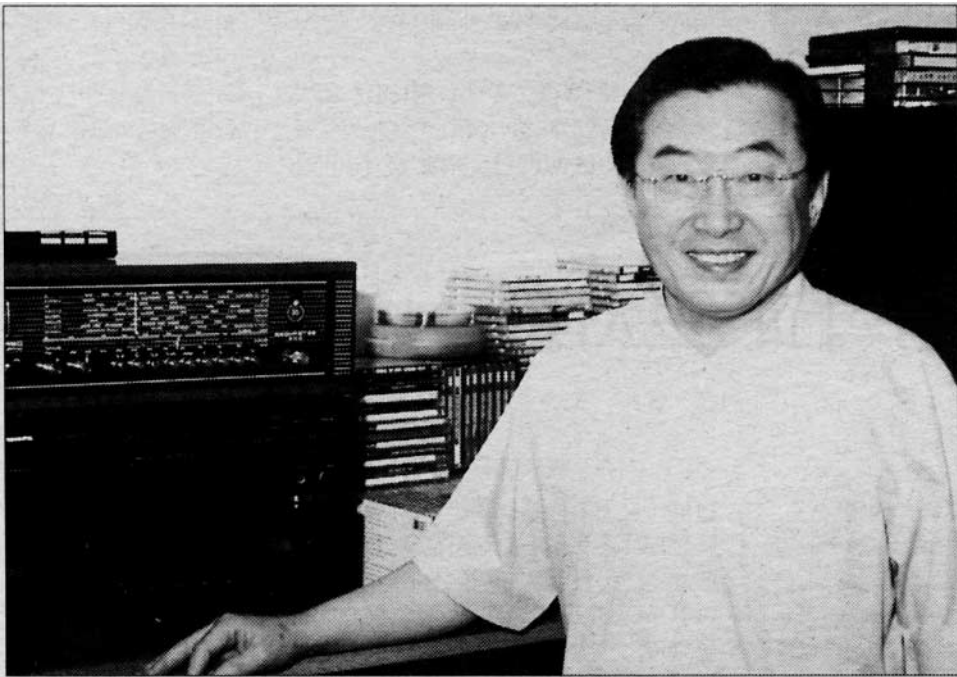
1년여의 혹독한 연습을 거쳐 지난 5월 10일 개최한 첫 독창회에는 무려 4백여 명의 관객들이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관객들은 치과의사가 독창회를, 그것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찾아왔으나 전문 성악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의 가창력에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날 독창회에서 劉동문은 우리 가곡인 「그리움」과 「망향」을 비롯해 외국 가곡 「오 나의 사랑하는 녀」, 「라르고」, 「이상」, 「사월」, 「물망초」, 「사랑의 기쁨」 등을 선보이며 전문 성악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다.

劉동문은 독창회 개최 배경에 대해 『독창회를 가지기 위해 성악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성악 공부를 함에 있어 독창회를 가진다는 것이 자신의 음악 발전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이와 더불어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은 전문 성악가들이 독창회를 하는 것과 비전업인들이 하는 것은 의미상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저처럼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8년 자신처럼 음악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들을 규합해 「세실포럼」을 창립하기도 한 劉동문은 앞으로 『치과의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함과 동시에 성악은 세월의 연륜이 묻어 숙성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성악은 평생을 두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성악 공부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이태리적인 성악 발성법을 집중 연구하여, 이를 집대성해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劉동문은 丁榮珠여사와 3남을 두었다.





하와이 지부

高柄翊총장 방문때 식당에서 결성

글 : 李尙協(86년 社會大卒)간사

이글거리는 태양과 넘실대는 파도, 불타는 노을과 한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굳이 와이키키 비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곳 하와이가 세계 유수의 휴양지라는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가수 겸 영화배우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주연했던 영화 「블루 하와이」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이곳 하와이의 하나우마 베이에서 물고기들과 같이 수영을 즐기다 보면 통상 지상 낙원에 비유하는 것이 과장만은 아닌 듯 싶다.

북태평양 동쪽 한 가운데에 위치한 하와이의 인구는 약 1백20만 명으로, 오하

우 섬의 호놀룰루가 수도이다. 하와이 하면 인구의 80퍼센트가 거주하고 있는 오하우 섬을 생각하기 쉬우나 가장 큰 섬은 주의 명칭이기도 한 하와이 섬이며, 이밖에 마우이 섬, 몰로카이 섬 등 8개의 큰 섬을 포함, 무려 1백32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하와이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하와이에 한인이 터를 잡고 생활한지도 벌써 1백 년이 되었다.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 유입을 목적으로 1백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 항구에 발을 디딘 것이 하와이 집단 이민의 효시로 기록되어 있다. 이

후 불과 2년 반 동안 무려 7천5백 명의 한인이 하와이로 이주를 해왔고, 1930년대까지 꾸준한 이주로 이른바 하와이 이민 1세대가 완성되었다. 현재 하와이에는 약 5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와이 지부의 경우를 보면 60년대에 하와이로 이주한 분들이 최고 연장자층을 구성하고 있다. 하와이대학 및 병원, 동서문화센터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동문들이 많으며, 이 중 李承晚박사에 대한 회고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치 지난 한국과 하와이 관계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한편 하와이 지부는 1980년 당시 서울대학교 14대 총장이셨던 高柄翊동문의 하와이 방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高柄翊총장이 하와이 방문중 현지의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특별히 만나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이때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10여 명의 동문이 高柄翊총장과 만나 즉석에서 하와이 지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최고 연장자였던 李東烈(49년 醫大卒)동문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2대 회장으로 朴晚相(54년 師大卒)동문을, 3대 회장에 1, 2대 총무를 맡았던 柳在浩(61년 文理大卒)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현재 14대 회장인 鄭在勳(59년 農大卒)동문이 21년 전통의 하와이 지부를 이끌고 있다.



鄭在勳 회장

하와이 지부는 2001년 5월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송년회를 겸한 총회와 임원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으며, 골프, 테니스 모임 등의 스포츠 모임과 신년하례회 등의 비정기 모임을 통해 친목을 더욱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곳 하와이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동문들을 위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 또한 매년 가지고 있다.

한편 지난 정기총회는 송년 만찬을 겸해 노래와 음악이 어우러진 동문 친목 도모의 시간을 마련, 참석자 모두가 즐거운 한 때를 보냈으며, 이와는 별도로 열린 골프대회도 대성황을 이루었다. 정기적인 주소록 작성은 물론, 서울대총동창회 및 미주 총동창회와의 업무 연락 등 동창회의 주요 기초작업 수행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2000년 부부동반 송년회



재료공학부 금속동창회

모교 금속공학과 도서관 설립에 자부심

글 : 權東一(79년 工大卒)총무



李東寧 회장

재료공학부 금속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도우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50년 발족되었다. 당시 초대회장으로는 朴禧善동문이 선출되어 동창회의 기틀을 다졌으며, 이어 2대 崔在烈·3대 柳在相·4대 朴平柱·5대 廉熙澤·6대 金東勳·7대 朴鍾泰·8대 崔正吉·9대 朴煥奭·10대 金宗燦·11대 張炳洙·12대 羅亨用·13대 趙容善동문이 동창회 발전에 기여, 현 14대 회장인 李東寧동문이 고군분투하며 동창회를 이끌고 있다.

경성대학 야금학과 및 경성광산전문학교, 모교 금속공학과·공업교육과(주조전공)·재료공학부 졸업생 그리고 대학원 금속공학과 및 재료공학부 졸업생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는 재료공학부 금속동창회는 현재 2001년도 졸업생을 포함, 회원 수가 3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재료공학부 금속동창회는 매년 4월 둘째 화요일에 정기총회를, 매년 10월 둘째 일요일에 동문 및 동문가족 만남의 장인 「금속의 날」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동창회 및 모교에 대한 사업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하

고 있으며, 아울러 시상식, 임원 선출, 신입회원 환영식을 마련하는 등 더욱 알찬 동창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1985년에 시작된 「금속의 날」에는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참석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 동문간의 돈독한 우의는 물론 가족간의 친목 도모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그 해 졸업 10배수가 되는 동문들에게는 동창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수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모교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그 동안의 발전상을 느끼도록 모교 연구실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창회 활성화와 금속공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동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금속공학 발전에 공헌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런 금속동문상」을, 동창회 활성화에 큰 공로를 세운 동문 및 전임회장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졸업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에게는 「동창회장상」 및 1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수십 년간 회원 동문들이 정성껏 낸 동창회 운영기금 수익금 및 연회비로 동창회 운영뿐만 아니라 모교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1969

년부터 도서관기금을 마련하기 시작, 1977년 모교 금속공학과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후 20년간 꾸준히 도서관기금을 통해 확장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86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힘든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모교 발전기금에 「금속재료후원금」을 설립, 운영기로 했다. 이 금속재료후원금은 장학금뿐만 아니라 재료공학부 실험장비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료공학부 금속동창회는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1977년부터 꾸준

히 동창회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매회 1,800부 정도를 발행해 전 동문에게 발송하고 있다. 또한 자체 보유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화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원명부를 2년마다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재료공학부 금속동창회는 이처럼 모든 동문들이 물심양면으로 모교의 발전과 동창회의 발전에 진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활동으로 재료공학부 금속동창회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후학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데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매년 「금속의 날」 행사를 개최, 가족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⑥0 (주) 이노디지털

지식관리 시스템·문서관리 솔루션 전문업체

「무차입 경영」·「100% 직원 주주제」 자랑

『현재 국내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들의 지식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장 욕구가 다소 위축돼 있긴 하지만, 점차 지적 자산이 기업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로 변모하면서 지식경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이노디지털은 올해 연구, 제조, 통신, 유통, 보험, 병원 등 산업 부분별로 지식관리시스템을 전문화해 보다 공격적인 영업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할 생각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KMS), 통합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개발·공급해 온 솔루션 전문업체 (주)이노디지털(www.innodigital.co.kr)의 이노디지털(71년 法大卒)사장이 말하는 올해 사업계획이다.

현대중공업(주) 해외담당 및 왕컴퓨터코리아 영업 상무 등을 20여 년간 맡아오며 해외건설·컴퓨터사에서 잔뼈가 굵은 이노디지털은 지난 95년 왕컴퓨터코리아의 소프트웨어 사업부를 독립시키는데 성공, 지금의 이노디지털의 전신인 왕아이에스티를 출범시켰다.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보관되어지는 데이터 양이 매년 두 배 이상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KMS/EDMS 정보관리, e-비즈니스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방송, 통합 메일 서비스 등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보 저장장치 솔루션이 IT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등극한 이노디지털은 시장점유율에서도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벤처기업으로, 매년 200%이상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직원의 80%가 연구개발 인력으



李永辰 사장

로 구성돼 대기업 못지 않은 탄탄한 기술력과 안정된 경영을 자랑한다.

이노디지털이 제공하고 있는 Storage (Disk Array), OutPut Device(Juke Box, LTO), InPut Device(Scanner)등의 컴퓨터 주변기기 하드웨어 및 KMS/EDMS 솔루션은 방대한 문서 정보를 다루는 주요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 및 보험에서 쓰여지는 청약서, 카드신청서, 대출신청서, 각종 입·출입 전표, 제조·건설 분야의 기술문서(SOP, BOM, Manual), 도면, 일반 문서, 통신사의 각종 신청서, 행정문서, 병원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노디지털의 손을 거쳐간 기관·업체로는 공공부문에 조달청, 농림부, 서울지방 경찰청, 한국전력, 대법원, 특허정보기술센터, 한국무역협회 등이 있으며, 금융부문에 푸르덴셜생명보험, 삼성생명서비스, ING생명보험, 대우증권, 동부화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있다.

또한 제조부문에 제일제당, LG-CALTEX정유, 현대자동차, 인천제철, 효성중공업, 금강고려화학, 기타 SK텔레콤, 신세계백화점, 한국통신, 포스코경영연구소, 한국가스공사, DHL코리아 등 1백여 개 이상이 있으며, 1차 프로젝트 수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차후 지속적인 수주를 요구하는 등 고객 업체

간에도 끈끈한 신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벤처기업 기술평가 우수관정을 받기도 한 이노디지털은 특히 지난 5월 코스닥 공모 당시 928 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며 첫 거래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한편 이노디지털은 오프라인 사업에서 얻은 수익과 기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이트이자 인터넷마일리지 가능한 「팝포인트스테이션」(www.poppoints.co.kr)과 쇼핑물 가격비교사이트인 「클릭프라이스」(www.clickprice.co.kr)를 새롭게 단장, 네티즌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5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팝포인트 사이트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PC에 설치하면 전세계 6

백여 개 인터넷 방송과 2백30여 개국 웹투폰, 음성 및 문자서비스, e카드, 쇼핑물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동영상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는 마일리지 점수를 얻게돼 유료서비스, 쇼핑 및 신용카드 요금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벤처」라는 이미지보다 「중견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노디지털이 타기업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부분은 바로 「무차입 알짜경영」과 「100% 직원 주주제」.

『창업할 당시 직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아 더욱 가족 같은 분위기로 다함께 힘을 합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임원 및 전 직원이 주주가 되어 외부로부터 들여온 자본이 없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보다 「오너십」을 심어주면 회사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는 이노디지털 대표인 이노디지털은 이러한 실속경영에 힘입어 앞으로 필리핀·싱가포르·카자흐스탄·태국 등의 해외시장에도 직접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表)



이노디지털 인터넷 사이트.



건강할 때 후회하지 않는 삶 살아야

太榮淑(75년 看護大卒)고신대 의학부 간호학과 교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삶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본인은 75년 모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암 환자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고신대 복음병원에서 25년간 학생 실습 지도와 연구들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복음병원은 초대 張起呂박사님이 설립한 병원으로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1천1백여 병상의 암 전문병원이다. 50살의 나이를 바라보며 그 동안 무수한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한 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희망을 통하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운 지혜를 이 지면을 통해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이 세상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죽음의 통고를 받은 많은 암 환자들은 그 동안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온 것에 대한 억울함, 후회감, 죄책감 등에 시달린다. 「내가 남한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몹쓸병이...」, 「무슨 죄가 많아 이런 죽을병이...」 등의 하소연을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암은 곧 죽음」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죄와 연결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

암 환자들은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눈 맞추는 것,
“힘 내세요”등의
격려의 말을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들의 기나긴 투병과정을 지켜보며 본인은 살아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교육을 많이 받거나 물질이 많다고 암을 잘 이겨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적응을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들은 암 투병과정에서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고, 자신감을 갖고 투병생활에 임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안되는 시기가 오게되면 이들은 체념하며 운명에 맡기거나 신앙적으로 더 믿음이 절실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관심을 이웃에게 돌리며 그 동

안 관계가 나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리하며,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 동안 너무 나만 위해서 욕심을 많이 부리며 살았어요」하면서 반성하며, 이제 남은 삶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다가 죽고 싶다고 한다. 참으로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며 사는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질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강할 때 남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관계의 연속이다. 이 관계가 잘못될 때 우리의 생활은 균형이 깨어지고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에 대한 인정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도 역시 창조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가치로운 존재라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

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았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제일 참지 못하는 것 같다.

많은 암 환자들이 의료인에게 원하는 것도 환자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이들은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눈 맞추는 것, 「힘 내세요」 등의 격려의 말을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건강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따뜻함이 있는 관계, 더 적극적으로는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주어진 인생 여정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생활 속의 가치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웃을 우리는 옛 습관에 젖어 마음대로 비난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정죄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한번 주어진 삶을 잘못된 가치에 의해 지배당하지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웃의 귀중함을 깨닫고 살자!

죽어 가는 암 환자들의 고백을 통해 필자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매력과 권력이 일치해야 행복한 사회

李正雨(83년工大卒)철학아카데미 원장



한 사회를 지배하는 두 대조적인 힘으로서 매력과 권력을 생각할 수 있다. 매력이란 무엇인가? 매력이란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런데 그 힘이 강제적이거나 돈을 사용한 것이거나, 이해타산에 관련된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매력이라 하지 않는다. 그런 힘은 외재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인간이 오로지 그 자신의 내적인 힘에 의해서, 그리고 타인의 자발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타인을 끌어당길 때 그것을 매력이라 부른다. 한 사상가가 던지는 총체적인 세계 이해의 매력, 한 가수가 뽑아내는 열정적인 노래가 주는 매력, 아픈 몸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운동 선수가 주는 매력... 이런 자발적이고 자체 내적인 힘을 우리는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강제적인 힘, 돈이나 이해타산이나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힘, 타인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힘, 우리는 이런 힘을 「권력」이라고 부른다. 영장이 범죄자에게 가하는 힘, 입영통지서가 젊은이에게 가하는 힘, 회사의 사장이 사원에게 가하는 힘, 병장이 일병에게 가하는 힘, 우리는 이런 힘들을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은 외적이다. 그것은 한 인간 자체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 인간이 차지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
학생이 따르는 교수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권력과 매력의
일치를 본다

하고 있는 「자리 이름(位)」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 이름 때문일 것이다.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싸늘하고 힘겨운 세상이다. 매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훈훈하고 자유로운 사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에서, 직장에서, 정부 청사에서 힘든 생활을 겪어 나가야 하고 공연장에서, 도서관에서, 운동장에서 한숨을 돌린다.

권력과 매력이 일치할 때 건강한 사회가 도래한다.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

령, 학생들이 따르는 교수, 사원들의 사랑을 받는 사장님, 쫓병들의 신임을 받는 병장,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권력과 매력의 일치를 본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아냥거림을 받는 대통령, 학생들을 피해 다니는 교수, 사원들의 술안주가 되는 과장, 이들에게서 우리는 매력과 권력의 불일치를 본다. 매력과 권력이 불일치 하는 사회, 매력보다는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매력이 지배하는 사회일까,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일까? 「사회가 점차 각박해진다」, 「숨쉴 공간이 없다」, 「모두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발악을 한다」... 이런 말들은 바로 우리 사회가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사회가 점차 각박해진다는 것, 뭔가 모를 압박감이 가슴을 누른다는 것, 그 어디에도 숨쉴 공간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매력을 점차 상실하고 권력의 사회로 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매력을 상실한 관료들은 걸핏하면 법조문을 들춰댄다. 더 이상 논리나 이성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법」을 찾는다. 매력을 상실한 사장님은

돈의 위력으로 사원들을 굴복시키고자 한다. 사원들은 돈 때문에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지만 뒤에서는 욕을 한다. 매력을 상실한 상관은 아래 병사들에게 그의 계급장을 가지고서 힘을 가한다. 그러나 유사시가 되면 계급장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된다.

오늘날 대학은 이런 모습을 선명히 보여준다. 매력을 상실한 교수들, 실력도 인격도 없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그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발악을 한다. 최근에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성 세대와 젊은 학자들 간의 갈등은 이미 매력을 상실한 늙은 교수들의 더러운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에 「명예 퇴진」 때문에 교사 자리가 모자란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명예 퇴진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이 아니라 교수들이다. 지금 우리 대학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 교수들 대다수는 모두 예전에 정리 해고되었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 매력 없는 늙은이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서울법대 출신은 꽃집을 해도 부자가 된다?

魏秀玆 : 魏英仁(66년 工大卒·프레스토라이트아시아 사장)동문 차남



모든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바라볼 때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진다. 모두 같은 장면을 같은 시간에 바라볼지라도 각자 살아온 제각각의 인생 길을 통해 쌓아온 다른 가치관에 기인해 생각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한 사람을 떠올리며 다른 이와 구별지을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아닐까 싶다. 즉, 우리에게 타인에게 비춰질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분명 여느 다른 파조물과는 구별되게 인간에게 주어진 큰 혜택일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색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분명 교육이며, 또 고등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대학 교육은 이에 무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서울대인이 아니다. 비서울대인인 나로서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몇 가지 복잡한 상념들이 내 머릿속을 휘감아 버렸다. 좋은 점을 부각시켜달라는 뜻일까? 아님 잘못된 점을 솔직히 지적해 달라는 뜻일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면 모교가 아니라 서울대학을 음해 한다는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나는 타대학에 다니며 이제 졸업을 준비하는 대학 4학년이다. 이제 취업과 진학의 갈림길에 서 있고, 사회로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내게 서울대학 출신의 재원들은 한번 더 눈여겨보게되는 내 인생에서의 경쟁자이며, 때로는 닮고 싶고, 때로는 피하고픈 전형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한 사람의 색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아 서울대학을 졸업했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내가 지금껏 겪어 온 서울대인들은 전체를 대표하기에 너무도 소수의 표본에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내 판단은 무척 편협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우선 나는 서울대인을 존경한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서울대인이 되기까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상황이 어떠했건 분명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보다 많은 땀을 흘렸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남보다 더 강하게 통제해왔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서울대 나왔다고 어깨 힘들어갔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울리기에 그들의 노력이 나에게 보다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자신이 이미 획득한 명성에 도취되어 어쩌면 더 이상

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옛부터 들어오던 우스개 소리인 「서울법대 출신은 꽃집을 해도 부자가 된다」는 말처럼 이러한 안일함 역시 우리 사회가 서울대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동시에 나는 서울대인이 측은하다. 어떠한 집단일지라도 한국인들은 묘한 특성상 첫 번째와 그 다음 또 그 다음이란 순위를 매기곤 한다. 중·고등학교시절 우수한 재원으로 인정을 받고 자라왔을 그들에게 선별된 가장 우수한 지적 소양을 가진 집단 속에서 겪게된 첫 번째의 박탈감, 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울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들 모두에게 다시 1등을 해보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차이가 왜버리지 않는가? 그들에게 분명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상황을 겪으며 몇몇은 자신이 가졌던 우수한 인재로서의 자신감을 조금씩 잃어가고, 대부분은 너무나도 각박한 경쟁 속에 이보다 소중한 감성을 잃어가고 있는 듯 싶어 안타깝다. 또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혜택과 함께,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을 그들에게 지게 하는 것 같다. 「역시 서울대 출신」이란 말보다 「서울대 나온 놈」이란

말을 더 듣게 되는 것, 이 역시 칭찬보다는 흠잡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의 묘한 습성으로 넘겨버리기엔 그들이 감수해야할 너무나 무거운 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난 사람이라 말한다. 이는 분명 인간이 태어나 머리 속에 품고 추구하는 한 모험임에 틀림없다. 나는 많은 서울대인들이 이미 이러한 훌륭한 성취자가 되었고 더 많은 이들이 이를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때로는 「이미 나는 많은 것을」이라는 조금은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지금껏 어렵게 이루어낸 것들을 헛되이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은가 싶다. 또한 인생에서의 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외적 성취의 부담 속에 이보다 소중한 감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또한 앞선다. 서울대란 이름 속에서 배어나오는 지성과 함께 인간미가 넘치는 내적 성숙함을 갖춘 서울대인들이 된다면 세상을 밝게 하는 한국의 리더로서 조금도 손색없는 인간상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글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개그맨 이영자가 살을 빼는데 지방흡입술을 받았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하더니 결국 시인을 했더군요. 수술한 의사가 「해줬다」고 나섰으니 도리가 없었겠지요.

여러분은 이번 파동(or 소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여러 가지로 참 딱하게 여겼습니다. 이영자가 『살만 빼면 모든 게 잘될 줄 알았다. 날씬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는 대목 때문에 우울했고, 의사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팔뚝 살을 빼기 위해 딱 한번 지방흡입술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짓말 또한 패심함을 넘어 서글픈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이 돈 때문에 일

어났다는 사실은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해 보지 않았으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의사나 이영자 모두 먹고 살만하지 않았을까 싶었기 때문이지요. 돈이란 과연 얼마나 있어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걸까요.

아무려나 여러분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보셨는지요? 아니면 「한번 가봤으면」 생각한 적은 있으신지요? 지금도 마음속으로 「눈 딱 감고」 혹은 「돈만 있으면」 가보고 싶으신지요. 물론 아파서, 혹은 화상 등의 후유증을 치료하러 갔거나 가야 하는 것 등은 빼고 말입니다.

강남의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과 신촌 대학가의 경우, 피부과나 성형외과

하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도사 같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수술, 사소한 듯한 처치도 결코 완벽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크고 작은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믿는 탓입니다.

자연분만보다 쉽고 편하고 안전하다는(흔히 그렇게들 말합니다) 제왕절개만 해도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2박3일이면 퇴원할 수 있지만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꼬박 1주일일은 병원에 있어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혹은 부인이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 후 「가스」가 나올 때까지 환자와 가족 모두 가슴을 졸이고, 나온 뒤에도 환자는 한참 동안 고

지 않으면 점차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피부과마다 자외선차단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의 수분을 뺏는다고 하지요. 결국 다소 하얗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칫하면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요즘 많이 시술하는 눈가 주름제거 주사(보톡스)도 일단 맞으면 주름제거 효과는 탁월하지만 대신 눈 아래 얼굴 근육이 약간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들 합니다. 주름은 없어지는데 자기 얼굴의 느낌이 다소나마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는 사람에겐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나 중년여성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려는 건 여성으로 살다 보면 외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들 역시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잘 생기고 늘씬했으면」하는 소망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가지 어떤 수술도 고통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광고나 선전처럼 완벽하고 근사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점만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쨌거나 수술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픔과 후유증을 경험하는 만큼 무조건 흉을 보거나 수군거릴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남의 입장이 돼 보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의 자로 남의 일을 함부로 재단하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싶은데...

이영자 & 피부과 & 성형외과

가 들어 있지 않은 빌딩을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은 걸 보면 깨끗한 피부, 근사한 얼굴이나 몸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 경우엔 과거보다 지금 더 유혹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였지요. 피부도 말갛고 화사했으면 좋겠고, 눈가의 주름도 없고, 코도 좀더 오뎅했으면 싶습니다. 뱃살은 물론이고 팔 다리가 굵어진 것도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려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참으려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마음을 편히 먹어서 얼굴을 부드럽게 만드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

통에 시달립니다. 배에 수술자국이 남는 것도 물론이구요.

요즘 남자들도 많이 받는 「피부박피술」만 해도 한번 받으면 1주일 정도 밖에 나다니기 곤란할 만큼 얼굴이 울긋불긋한 상태가 되고, 나온 뒤에도 피부관리를 꾸준히 정성껏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십상입니다.

검버섯은 다소 연해지고 작은 점 등은 없어지지만 잡지 등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깨끗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후 딱지가 떨어지면 분명히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햇빛을 차단해주

金在淳회장·閔相基대학원장 美 Rand社와 교류방안 논의



지난 6월 15일 본회 金在淳회장, 재미동창회 吳仁錫명예회장, 남가주지부 李清光회장, 모교 閔相基대학원장은 미국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리서치 기관인 Rand Corporation을 방문, 모교와 상호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Richard Fallon부회장, Jerrold D. Green이사 등으로부터 Rand Corp.의 각 분야에 대한 소개를 받았으며, Rand Corp.의 연구원이 한국 방문시 모교를, 모교 교수나 임직원이 LA 방문시

Rand Corp.을 상호 방문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 Rand-Europe과 같이 Rand가 장래 동남아시아에 지사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낄 때 모교와 협력관계를 갖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Rand Corporation은 교육, 환경, 노동, 과학기술, 복지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개선 및 결정에 도움을 주는 비영리 단체이다.

영동 지부

崔基烈동문 골프 우승

영동지부동창회(회장 姜奎錫)는 지난 5월 27일 용평C.C에서 동문친선 골프대회를 가졌다.

7개조로 나뉘어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 崔基烈(77년 齒大卒·강릉대 교수)동문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姜賢珪(61년 齒大卒·치과의원장)동문이 준우승을, 洪性啓(64년 法大卒·변호사)동문이 3등을 차지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金大中(70년 商大卒·두산BG 사장)동문이 Longest에, 鄭聖和(70년 工大卒·내인 사장)동문이 Nearest에 각각 선정됐다. 한편 행운상엔 韓昌昊(76년 法大卒)동문, 메달리스트엔 金益壽(55년 師大卒)동문이 뽑혔다.

사범대학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식 개최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璣教)는 지난 5월 30일 모교 호암생활관 컨벤션센터에서 본회 李聖秀부회장, 물리교육과동창회 林璋圭회장, 모교 曹昌燮학장을 비롯해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으로 선정된 李存熙(63년 역사교육과卒·서울시립박물관장)·全萬吉(66년 역사교육과卒·대한매일신보 사장)·李元雨(69년 교육학과卒·한경대 총장)·徐凡錫(75년 교육학과卒·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李회장이 李元雨동문(右)에게 꽃다발을 전달.

申鉉澤(75년 역사교육과卒·국립중앙도서관장)동문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2001년 사업계획으로 각 학과 재학생 1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表)

제주 지부

동문 가족과 함께 산행 다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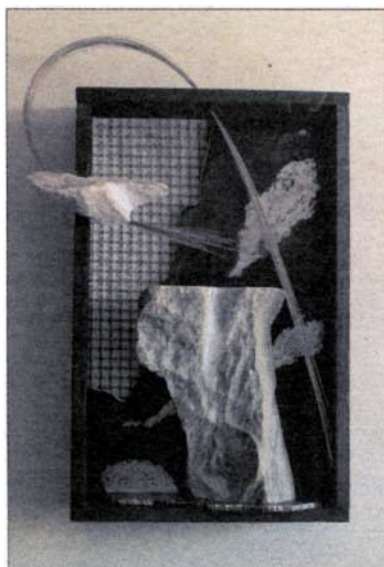
제주지부동창회(회장 文大潭)는 지난 6월 10일 제주시 명도암 소재의 「절물오름」에서 동산대회를 가졌다.

동문 및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동문뿐만 아니라 동문 가족이 함께 하는 모임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술작품

趙載妍作



「길-갈 수 없는…」Ⅳ, 신주선, 돌, 철판, 나무상자, 12.5×33×60cm, 2000.

〈작가약력〉

- △ 81년 모교 미대 조소과 졸업
- △ 90년 모교 대학원 졸업
- △ 87~99년 서울조각회전
- △ 92~2000년 여류조각회전, 어느조각모임전
- △ 93년 서울예고 40주년 기념 동문전
- △ 94년 한국미술 2000년대의 주역전
- △ 95년 한국조각의 비상전, 제1회 개인전
- △ 97년 예원동문전
- △ 99년 제1회 분당미술제
- △ 2000년 새천년 한국의 희망전, 조각과 나눔전
- △ 2001년 제2회 개인전
- △ 현재 예원학교 강사, 서울조각회·여류조각회·훈화회·어느조각모임 회원.

자연과학대학

가을에 「동창의 밤 행사」 개최키로

자연과학대학동창회(회장 陸寶根)는 지난 5월 31일 모교 호암교수회관 릴리룸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특별히 대기과학과동창회 朴淳雄회장 및 金性均총무, 물리학과동창회 盧泰元총무, 미생물학과동창회 安泰奭회장, 생물학과동창회 安正善총무, 지질학과동창회 朴南緒부회장 및 金準模재무간사, 천문학과동창회 朴昌範총무대리, 통계학과동창회 李榮祚총무, 화학과동창회 金秀子회장을 비롯해

모교 朴聖炫학장, 金熙濬교무부학장, 尹淳昌연구기획실장, 洪英男생명과학부장, 曹永賢수리과학부장, 金冠화화학부장 등이 참석해 모교와 동창회간에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로 동창회 명부를 발간기로 했으며, 동문들을 하나로 묶는 「자연대 동창의 밤」 행사를 가을에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전임 동창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호대학

楊銀淑 명예회장에 공로패 전달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朴明子)는 지난 6월 7일 신라호텔 오키드룸에서 「楊銀淑 명예회장 공로축하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俞淑子부회장은 楊銀淑 명예회장이 20년간 동창회를 위해 이룬 업적을 기리는 의미



李恩玉 학장과 楊銀淑 명예회장

에서 공로패와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모교 李恩玉학장은 모교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俞淑子부회장은 朴明子회장의 인사말 대독을 통해 『동문간의 화합과 모교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楊銀淑 명예회

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러한 여세를 몰아 동창회가 더욱 더 즐거운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중한 추억이 담긴 모교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동창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학대학

崔奎根·李喆準 동문이 바둑 우승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6월 3일 서초동 한일기원에서 姜炳善·金熙中·李奎鎬 부회장을 비롯해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1급 이상의 A조와 1급 이하의 B조로 나뉘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A조 崔奎根동문이, B조 李喆準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날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조 준우승: 鄭文琪동문, 3위: 朴昇東동문, 4위: 孫善一

동문.

B조 준우승: 俞載應동문, 3위: 許明權동문, 4위: 韓秉勳동문.

스웨덴 지부

韓晶愚 회장 선출

스웨덴지부동창회(회장 吳麟錫)는 최근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회장에 韓晶愚(55년 文理大卒)동문을, 간사에 趙重來(90년 師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이번 동창회보 7월호에 연회비 납부용 지로용지를 동봉하였습니다. 회보 구독료라도 납부하신다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테니스회

제33회 정기대회

耳順테니스회(회장 全兢烈)는 지난 6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장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창립 이후 매년 연 3회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이순테니스회는 이날 고희조와 이순 A·B조로 나누어 풀 리그전으로 시합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고희조에 金應振(39년 京城醫專卒)·吳泰烈(56년 商大卒)동문과 이순 A조에 高相睦(57년 商大卒)·李炳允(57년 齒大卒)동문, 이순 B조에 趙勝鉉(49년 醫大卒)·姜信玉(61년 法大卒)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다음 경기인 제34회 정기대회는 오는 10월 3일 개최될 예정이다.

부천 지부

제12회 정기총회

부천지부동창회(회장 白承權)는 지난 6월 18일 중동롯데빌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그 동안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朴敬鎭전임회장과 宋鍾永전임총무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새로 회원수첩을 제작 발간하기로 협의했으며,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산 지부

梁瑋模 이사 추대

마산지부동창회(회장 李進)는 지난 6월 2일 「그린힐」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회원 동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동창회 신임 이사에 梁瑋模(81년 齒大卒)동문을 새로 선임했다.

인도네시아 지부

골프대회 農大 우승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相璟)는 지난 5월 24일 Jagorawi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개인 및 단과대별로 나누어 경기가 개최됐으며, 단체 우승에 농과대학이, 2등에 공과대학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개인별 경기에서 崔亨洵(73년 農大卒)동문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에 鄭炗京(73년 文理大卒)동문, 3등에 尹蓉國(74년 商大卒)동문이 선정됐다.

영어교육과

신임 회장에 李城鎬 동문 선임

영어교육과동창회(회장 金德起)는 지난 6월 8일 상록회관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城鎬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金錫九(50년卒)·邊熙俊(62년卒)·姜義貞(65년卒)·李益煥(68년卒)·禹根龍(69년卒)·宋寅浩(71년卒)·高潤燮(72년卒)동문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 선임된 李城鎬동문은 62년 사대 영어교육



과를 졸업했으며, 美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영어영문학회·한국영어교육학회·아메리카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양대 교수로 후학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농화학과

신임 회장에 金榮一 동문 선출

농화학과동창회(회장 郭泳九)는 지난 5월 27일 모교 수원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2000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선출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榮一동문(사진)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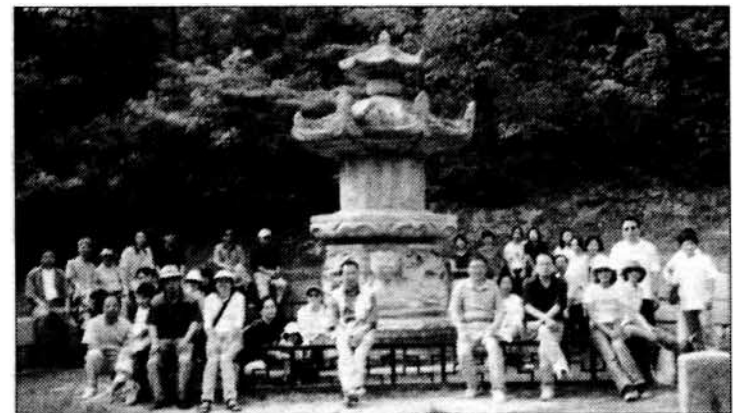
이어 가진 吳平煥장학금 수여식에서 金명애·김승영·박진휘·임석기 군이 각각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이날 신임 회장에 선출된 金榮一동문은 69년 농대 농화학과를 졸업, 美 Cyanamid社에서 농약담당 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바스프아그로(주)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미학과

남한강 주변 고적답사 실시



미학과동창회(회장 鄭明洙)는 지난 6월 6일 남한강변 폐사지로 고적답사 여행을 다녀왔다.

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인 俞弘濬(80년卒·영남대 교수)동문의 안내에 따라 거둔사지, 고답사지, 범천사지 등 남한강 주변의 폐사지와 세종대왕영릉, 효종대왕 영릉 일대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金文煥교수, 姜駿赫공연기획자, SEARS

KOREA 盧順玉지사장 등 동문 20여 명이 참가했다.

정치외교학과

鄭鍾旭 동문 강연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具範謨)는 지난 6월 1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鄭鍾旭(65년 文理大卒·아주대 석좌교수·前 중국대사)동문이 「중국의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열띤 찬사를 받았다.

SNUA OPINION LEADER

최근 노화로 기능이 약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처럼 활동하게 만드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화제를 모았던 朴相哲교수. 朴교수가 말하는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가족적 대책에 대한 글을 정리했다.

최근 인구통계자료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100세 이상의 장수인이 전국적으로 2천2백21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4.7인이라는 자료는 우리 나라도 일반인들의 100세 시대가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한 문화가 새롭게 창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및 가족적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기본적으로 노인문제는 가족문제라는 개념 하에 기존의 우리 사회에 근간을 이루어 왔던 孝사상에 의존하는 단순한 사고가 정책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현대 사회의 신속성·가변성·국제성의 특성을 수용하기에는 노인층의 효율적 활동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나이가 들게 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굳이 탓할 수만도 없게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급격하게 증가된 노인층의 소외된 생활은 사회의 안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급속도로 증가되는 노인층 인구의 사회의 무대책 그리고 사회적 소외의 가속도는 노인문제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국

고령화 현상은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 생활환경의 개선,
의학적 시혜의 확대로
개개인들의 수명이
不隨意적으로 증가된
것이 아닌가.

갑자기 오래 살게 된
노인층들의 방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노인들과,
주변의 사회가 함께
변화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

고령화 사회와 장수문화

면을 전환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국면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60세를 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60세 이상은 고령자로서 사회적 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본인들도 나름대로 가족과 사회의 원로로서의 처신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75세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나이60세에 정년을 한 많은 노인층들의 정신적·사회적 방황이 시작되고 이러한 방황은 더욱 그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누구의 책임인가? 생활환경의 개선, 의학적 시혜의 확대로 결국 개개인들의 수명이 不隨意적으로 증가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회적·문화적 환경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갑자기 오래 살게 되어버린 노인층들의 방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노인들과, 주변의 사회가 함께 변화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노인문화를 창출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수사회의 전반적인 장수문화가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장수문화란 무엇인가?

장수문화라는 새로운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란 기본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틀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노인층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문화의 정립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춘을 바쳐 사회에 기여해 왔던 사람들이 물려나 소외된 상황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반인들의 삶의 질을 보존시키는 장수문화의 창출은 시급하다.

따라서 장수문화는 노인 자신과, 노인을 수용하는 사회 및 일반환경과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간략하게 보자면 첫째, 일반환경은 21세기의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학의 세계에서 친숙하지 않은 거리감을 해소하고 이에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산업과 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능을 극대로 유지, 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이 가능한 것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수명 연장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을 수용하는 사회의 변화이다.

노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가족적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종래 孝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회가 이제는 경제성과 편리성이라는 명분 하에 무장해제 되어 노인들이 종래 기대해 왔던 노후세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낯선 세계로 밀려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근래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기본개념을 무능력, 무기력, 무효율 등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적 장수의
중요성은 심대하다.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젊은이 못지 않은 멋진
생활을 즐겨야 한다.

장수문화는
건강문화이며,
멋진 문화이며,
당당한 문화이다.

으로 고정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소외시켜왔던 노인들에 대한 개념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노인 또는 노화의 정의를 기계적으로 연령에 의해서 정의해온 것을 이제는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백세인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90세가 되어도 적극적인 창작저술활동을 하는 학자들을 보면서 나이라는 단순한 변수에 의하여 사람을 구분해 왔던 사회적 통념을 이제 고쳐야 할 시점임을 깨닫게 된다.

셋째, 노인 개인의 문제이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회적으로 노인을 소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들 스스로가 물려서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본다. 신체의 기능 저하, 피로도 증가, 의욕 저하 등의 요인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일선에서 후퇴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백세 장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뿐 아니라, 유머감각이 탁월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보다 보람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이 요구될 때이다.

실제로 단순한 수명의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구나 나이가 들었어도 남에게 추하지 않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늙어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적 장수(Functional Longevity)의 중요성은 심대하다. 기능적 장수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노인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젊은이 못지 않은 멋진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생명과학의 발전은 노화에 대한 개념을 크게 수정하고 있다. 종래 노화란 죽음에 대한 전제조건 또는 전 단계로 해석되어 왔고, 으레 늙으면 죽는다는 공식은 만고의 진리로 여겨 왔다. 그러나 실제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를 비교해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자외선을 조사한 경우 젊은 세포는 적절한 반응을 하는데 반하여 늙은 세포는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주 강한 강도의 자외선을 조사한 경우



朴 相 哲

- 73년 모교 의대 졸업
- 국제노인학회 회장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
- 영국 「노화의 원리」誌 편집인
- 모교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젊은 세포는 죽어버리지만, 늙은 세포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노화란 죽음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체의 생존전략의 결과라는 해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종래 노화세포의 기능 저하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의 비가역적 현상으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늙으면 당연히 생체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노화에 따른 세포기능 저하요인이 밝혀지고, 그러한 원인인자에 대한 처치를 통하여 노화세포도 젊은 세포 못지 않은 기능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노화세포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公理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즉 이와 같이 시대적 연구성과는 종래 노화개념을 혁신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개념전환을 통하여 인간의 노화현상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변화는 바로 장수문화의 핵심을 이루며,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노인들과 노인들이 속하는 사회의 구성원 전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수문화의 정립은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장수문화는 구체적으로는 첫째 건강문화이다. 스스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패턴을 개선하고 식생활을 바꾸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둘째 멋진 문화이다. 노인으로서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이 못지 않게 멋도 부리고, 이웃과 어울리는 정신적 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생활문화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활동이라든가 취미생활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당당한 문화이다. 노인으로서 남에게 밀리지 않고 자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각종 활동들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며, 더욱 원로로서 나눔을 우선하는 생활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솔선하여 봉사하는 노력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장수문화란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늙을 수 있는 사회건설을 통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밝은 빛을 비취 줄 수 있는 금빛 문화(Golden Ray Culture)로 발전되어야 한다.

모교소식

외국인교수 매년 1백명씩 충원

전체 교수정원의 20% 늘릴 방침

모교가 외국인 교수를 내년부터 매년 1백명씩 충원, 3백명선까지 늘리기로 하고 정부와 예산지원 등 구체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대학 사회에 지적 자국 등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교수를 연간 1백명 정도씩 유지하고 향후 전체 교수정원(1천5백여 명)의 20%선(3백여 명)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교의 정식 외국인 교수는 단 3명이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IT)분야의 경우 외국인 교수 1인당 1억원씩 대응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해옴에 따라 모교는 내국인 교수와의 형평성을 고려, 정보통신부 지원자금은 외국인 교수의 초기 연구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1인당 1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어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수한 외국 연구인력의 초빙작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추천위

孔大植·金一燮·朴聖姬 동문 위촉



孔大植



金一燮



朴聖姬

모교 교수로만 구성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추천위원회」에 금년부터 동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모교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추천위원으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문 3명을 추천해 달라고 본회에 의뢰해왔다.

이에 따라 본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한테크시스템 孔大植(60년 工大卒)대표, 한국회계연구원 金一燮(69년 商大卒)

원장, 한국경제신문 朴聖姬(77년 家政大卒)논설위원 등 3명을 모교에 추천했으며, 지난 6월 18일 2년 임기의 후보추천위원회에 위촉됐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선임위원(총 17명 이내)으로 나뉘며, 당연직 위원은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실장, 기획부실장이며, 선임위원에는 인문·사회계 교수 3명, 자연계 교수 4명, 예능계 교수 1명, 동문 3명이 포함돼 있다.

연합전공 이수규정 제정

모교는 내년 1학기부터 학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합전공제 이수규정을 최근 제정했다.

모교는 전공주임이 결정되는 다음 학기부터 이수교과목을 정하고 교과목을 조직, 개발하는 등 교과과정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신설을 준비중인 전공은 PPE(철학·정치·경제), 한국학, 도시학, 기술경영학, 생명학 등 모두 5개다.

연합전공제는 2개 이상의 기존전공을 연합해 만드는 새로운 전공분야로 복수전공과는 달리 졸업시 하나의 학위를 받게 된다.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각 연합전공에 참여하는 학과 소속 학생만이 연합전공에 지원 가능하며, 2000학번만을 대상으로 하되 99학번 이상도 자격이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연세대와 세무학술교류

모교는 지난해 10월 25일 체결한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간의 세무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지난 5월 30일 연세대에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교는 공동 수서 등 도서관 업무의 협력과 자료의 교류, 슈퍼컴퓨터 공동 이용 등 전산시스템 자원의 교류, 학술교류를 위한 추가대상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교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

여름캠프 및 토요창작교실 실시

모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직원, 동문 자녀 및 관악구민의 자녀를 위한 제3회 여름캠프 및 토요창작교실을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모교 관악캠퍼스와 주변환경을 활용하여 교내 천문대에서 별자리 관찰, 캠프파이어, 관악산 등반(이상 여름캠프), 과학교실, 공작교실, 글짓기교실 및

견학(이상 토요창작교실)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문의: 880-5766, 5767)

■여름 캠프 △대상: 초등학교 100명 △일시: 2001년 8월 18일 오후 2시부터 8월 19일 오후 5시까지 △비용: 5만원

■토요창작교실 △대상: 초등학교 60명 △일시: 2001년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용: 4만원

대학원 석·박사과정 후기모집

인문·사회 기초학문 분야 미달

모교가 학생 충원을 위해 올해부터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대해 후기모집에 나섰으나 인문·사회대 등 기초학문 분야 박사과정은 정원을 못 채웠다.

그러나 전문대학원과 법대·경영대 등 실용학문 분야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6월 23일 대학원 후기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백71명을 모집한 석사과정에 8백96명이 지원해 평균 1.90대

1, 1백59명을 뽑는 박사과정에 2백35명이 접수해 1.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19명을 뽑기로 한 사회대 박사과정에는 3명만 지원해 0.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연대(1.4대 1)와 사범대(1.2대 1), 농생대(1.4대 1) 등도 정원을 겨우 넘었다. 이에 반해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각각 6대 1, 4대 1, 법대와 경영대는 각각 5대 1, 3대 1의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燮>

제1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며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매년 개교기념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이거나 모교에 장기간 봉직하신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알맞는 후보 인물을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5일까지 모교 기획담당관실(전화: 880-5081, 5589)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 정

수 상

▲吳鉉明(48년 音大卒·성악가)=지난 6월 13일 세종예술음악협회와 아름다운 우리 가곡 부르기 운동 중앙회가 수여하는 한국 가곡 성악가 대상을 수상함.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인 시낭송 문학연구회장)=최근 미국 International Writers and Poets Association & the University of Toledo로부터 「Meritorious Achievement賞」을 받음.

▲金性洙(52년 法大卒·오양수산 회장)=지난 5월 31일 제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을 받음.

▲金在權(53년 文理大入·美브라운대 석좌교수)=지난 6월 8일 故 崔載喜교수를 기리기 위해 유족과 제자 등이 제정한 제13회 曙宇 철학상을 수상함.

▲金璟東(59년 文理大卒·모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7월 13일 성곡학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6회 성곡학술문화상(인문사회과학 부문)을 수상함.

▲朴椿浩(59년 文理大卒·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지난 5월 31일 제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을 받음.

▲李東寧(61년 工大卒·모교 재료공학부 교수)=지난 6월 1일 호암재단이 수여하는 2001년도 호암상(공학상)을 받음.

▲朴龍安(61년 文理大卒·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지난 5월 31일 제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음.

▲張會翼(61년 文理大卒·모교 물리학부 교수)=지난 5월 28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심산사상연구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심산상(心山賞)을 수상함.

▲孫吉丞(63년 商大卒·SK그룹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6월 12일 한국 경제신문사가 수여하는 제10회 다산경영상(전문경영인 부문)을 수상함.

▲李海揆(64년 法大卒·삼성중공업 부회장)=지난 6월 20일 투루프 로 노르웨이대사로부터 노르웨이 왕실이 주는 「커멘더」 훈장을 수상함.

▲金貴坤(67년 農大卒·모교 조경학과 교수)=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의 생태가치를 집중 연구해온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음.

▲安輝濤(67년 文理大卒·모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지난 6월 23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4회 한국미술저작상을 수상함.

▲崔仁壽(70년 美大卒·모교 조소과 교수)=지난 6월 23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15회 「김세중 조각상」을 수상함.

▲黃映愛(71년 美大卒·조각가)=최근 월간 미술시대가 제정한 제11회 미술작가상을 수상함.

▲金京林(73년 文理大卒·연세대 교수·서울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장)=최근 제5회 서울시 환경상을 수상함.

▲辛鍾桂(77년 工大卒·모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지난 6월 13일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미국 조선학회가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인 「앨머 한」상을 수상함.

▲權鐘元(97년 醫大卒·모교 병원 방사선과 전공의)=지난 6월 22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제1회 청년슈바이처상 봉사상을 받음.

▲최윤신(47기 AMP·동양고속건설 대표)=지난 5월 31일 제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음.

▲金永大(49기 AMP·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장)=지난 6월 4일 가스안전사고를 현저히 감소시킨 공로로 국민훈장 모

란장을 받음.

이동·선임

▲朴東緒(53년 法大卒·모교 행대원 명예교수)=5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명예음부즈맨에 위촉됨.

▲徐廷旭(57년 工大卒·前과학기술부 장관)=지난 6월 14일 출범한 세계 인터넷 청소년 연맹(www.wiffy.org)의 한국연맹 총재에 추대됨.

▲康賢斗(61년 文理大卒·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장)=지난 6월 15일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 베이징 방송대학 석좌교수에 임명됨.

▲孫鳳鎬(61년 文理大卒·모교 사회교육과 교수)=5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명예음부즈맨에 위촉됨.

▲愼平宰(61년 商大卒·교보증권 이사회 의장)=지난 6월 10일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함.

▲洪昌基(61년 醫大卒·서울중앙병원장)=지난 6월 25일 한국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 제3대 위원장에 선출됨.

▲孔鍾源(62년 文理大卒·시니어저널 주필)=지난 6월 12일 한국불교언론인회 회장에 선임됨.

▲羅根炯(62년 師大卒·인천시 교육청 교육국장)=지난 6월 21일 민선 3대 인천시 교육감에 선출됨.

▲辛國煥(63년 法大卒·前산업자원부 장관)=지난 6월 2일 한국유통정보센터 상임고문에 위촉됨.

▲鄭東潤(63년 法大卒·고려대 법과대학장)=지난 6월 19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永珪(64년 法大卒·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지난 6월 7일 중앙일보 임시 주주총

편집주간식

自立과 活性化 기반다진 在美동창회 平議員會를 다녀와서

在美서울大同窓會가 미국 전역의 韓人社會에서 오늘날 우뚝 서기까지는 1萬餘 동문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그들의 모교와 조국에 대한 애정이 그 비옥한 토양이 되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거기에 同窓會라는 Community의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어 튼실한 결실을 맺기까지에 열정과 노력으로 이를 이끌어온 숨은 지도자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4년간 「모교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라는 말만 되뇌이면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내고, 돈이 필요하면 사재를 털어 (Noblesse Oblige) 북미주 전역의 서울대 Human Resource를 찾고, 또 이를 Networking하면서 오늘의 在美동창회 기반을 굳건히 다진 동문이 있으니, 吳仁錫회장(현 在美同窓會 名譽會長)이다.

더불어 在美 동문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Sympathy)에서부터, 유대와 결속을 높이고자 훌륭한 계획과 방안을 표출하기 위해 各界各地 동문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Listening)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다.

나아가 동문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미국 시민사회와 韓人社會에서의 봉사는 물론, 모교에 대한 지원관리봉사(Stewardship)를 실천하고 영속적인 system을 정립함에 이르기까지 정말 물심양면에 걸쳐 힘써온 그다.

현대경영학상 Community Building에 요구되는 Servant Leadership을 두루 갖춘 서울대인이기에 그는 더욱 자랑스럽다.

New Nation Building이네, 개혁이네 말로만 떠들면서도 실종된 Leadership에 위기와 불안만 확대 재생산시키는 지도자 연하는 사람들은, 참말과 옳은 행동으로 조그마하나마 큰 일을 해내는 그를 지금이라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회에서 초대 사외이사에 선임됨.

▲金鍾河(64년 文理大卒·국회 의원)=지난 6월 12일 국회 부의장에 선출됨.

▲孫善奎(64년 法大卒·前건설교통부 차관)=지난 6월 4일 한국감정평가연구원 초대 원장에 취임함.

▲卞柱仙(64년 師大卒·세계 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本會 副會長)=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 대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에 재선임됨.

▲司空壹(64년 商大卒·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지난 6월 7일 중앙일보 임시 주주총회에서 초대 사외이사에 선임됨.

▲崔國鎭(64년 醫大卒·모교 외과학교실 교수)=최근 열린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임됨.

▲趙容直(65년 文理大卒·삼영

화학그룹 부회장·新大院同窓會會長)=지난 6월 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동우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崔熙善(65년 師大卒·인천교대 교수)=지난 6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임명됨.

▲金慶漢(66년 法大卒·법무부 차관)=지난 5월 27일 서울 고검장에 임명됨.

▲金源治(66년 法大卒·대검찰부장)=지난 5월 27일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됨.

▲朴涼烈(66년 法大卒·법무부 보호국장)=지난 5월 27일 대검 공안부장에 임명됨.

▲金鶴在(67년 法大卒·법무부 검찰국장)=지난 5월 27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됨.

▲金秀哲(67년 保大院卒·성형외과의원장·保大院同窓會會長)=최근 「2001년 미스코리아 부산 선발대회」 심사위원에 위촉됨.

(23면에 계속)

(22면에 이어)

▲崔永煥(67년 行大院卒·세종대 부총장)=지난 5월 10일 세종사이버대 초대 총장에 취임함.

▲韓竣皓(68년 農大卒·前중소기업청장)=지난 5월 25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에 취임함.

▲金大雄(68년 法大卒·대검 중수부장)=지난 5월 27일 서울지검장에 임명됨.

▲金昇圭(68년 法大卒·대검 공판송무부장)=지난 5월 27일 광주지검장에 임명됨.

▲金永喆(68년 法大卒·대구지검장)=지난 5월 27일 법무연수원장에 임명됨.

▲安載奎(68년 商大卒·前외환은행 남대문지점장)=지난 5월 25일 외환코메르츠투자신탁운용(주) 사장에 선임됨.

▲全義進(69년 工大卒·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지난 6월 8일 제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됨.

▲明魯昇(69년 法大卒·법무부 법무실장)=지난 5월 27일 부산지검장에 임명됨.

▲朴泰涼(69년 法大卒·사법연수원 부원장)=지난 5월 27일 전주지검장에 임명됨.

▲柳昌宗(69년 法大卒·대검 강력부장)=지난 5월 27일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됨.

▲鄭鎮圭(69년 法大卒·울산지검장)=지난 5월 27일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임명됨.

▲金毅宗(70년 文理大卒·한국증권금융 상무)=지난 6월 12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에 선임됨.

▲朴丁三(70년 文理大卒·前국민일보 부사장)=지난 6월 22일 경향미디어그룹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崔聖載(70년 文理大卒·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지난 6월 8일 개최된 한국노년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함.

▲黃善泰(70년 法大卒·청주지검장)=지난 5월 27일 대검 검찰부장에 임명됨.

▲金德洙(70년 商大卒·한국산업은행 이사)=지난 7월 1일 동양메이저 상임고문에 선임됨.

▲朴鍾秀(70년 商大卒·대우증권 사장)=지난 6월 15일 증권업협회 부회장에 선임됨.

▲高永宙(71년 工大卒·서울지검 1차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장에 임명됨.

▲金昊植(71년 工大卒·前관세청장)=지난 6월 8일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됨.

▲朴武(71년 文理大卒·신한생명 고문)=지난 6월 6일 (주)머니투데이금융신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郭永哲(71년 法大卒·서울고검 차장)=지난 5월 27일 울산지검장에 임명됨.

▲宋光洙(71년 法大卒·부산지검장)=지난 5월 27일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됨.

▲趙圭政(71년 法大卒·제주지검장)=지난 5월 27일 청주지검장에 임명됨.

▲蔡秀哲(71년 法大卒·춘천지검장)=지난 5월 27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金仁竣(71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최근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출됨.

▲孟廷柱(71년 商大卒·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관)=지난 6월 12일 한국증권금융 사장에 선임됨.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고려대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상임이사로 재선임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회장·本會副會長)=지난 6월 6일 홍콩에서 열린 세계신문 협회(WAN)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에 선출됨.

▲河沅(72년 文理大卒·조선일보 총무국장)=지난 6월 1일 조선일보 출판국장에 선임됨.

▲金永珍(72년 法大卒·창원지검장)=지난 5월 27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됨.

▲金在琪(72년 法大卒·대전고검 차장)=지난 5월 27일 춘천지검장에 임명됨.

▲張倫碩(72년 法大卒·법무부 기획관리실장)=지난 5월 27일 창원지검장에 임명됨.

▲鄭相明(72년 法大卒·서울지검 동부지청장)=지난 5월 27일 대구고검 차장에 임명됨.

▲俞香淑(72년 藥大卒·인간유전체 연구사업단장)=지난 6월 8일 제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됨.

▲金相喜(73년 法大卒·서울고검 형사부장)=지난 5월 27일 부산고검 차장에 임명됨.

▲陳大濟(74년 工大卒·삼성전자 사장)=지난 6월 8일 제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됨.

▲姜敎熙(74년 農大卒·前현대투신운용 대표)=지난 6월 14일 굿모닝투신운용 대표이사에 선임됨.

▲申彥茸(74년 法大卒·부산지검 1차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에 임명됨.

▲李鍾伯(74년 法大卒·서울지검 서부지청장)=지난 5월 27일 대전고검 차장에 임명됨.

▲林承寬(74년 法大卒·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에 임명됨.

▲洪景植(74년 法大卒·수원지검 성남지청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북부지청장에 임명됨.

▲柳錫烈(74년 商大卒·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朴煥圭(75년 文理大卒·前동양카드 부사장)=지난 5월 24일 우리금융지주회사 전무에 선임됨.

▲邊龍植(75년 文理大卒·조선일보 사장실장)=지난 6월 1일

조선일보 편집국장에 선임됨.

▲金英薰(75년 法大卒·대구도시가스 회장·한몽경제위원장)=지난 6월 26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몽골 명예영사에 취임함.

▲李棋培(75년 法大卒·서울지검 3차장)=지난 5월 27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됨.

▲林梁云(75년 法大卒·서울지검 북부지청장)=지난 5월 27일 광주고검 차장에 임명됨.

▲林采珍(75년 法大卒·수원지검 2차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2차장에 임명됨.

▲洪錫肇(75년 法大卒·서울지검 2차장)=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에 임명됨.

▲方在旭(75년 師大卒·충남대 교수)=지난 5월 19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朴重鎭(75년 商大卒·동양증권 사장)=지난 6월 2일 동양증권 사장에 선임됨.

▲黃永基(75년 商大卒·삼성투신운용 사장)=지난 6월 2일 삼성증권 사장에 선임됨.

▲姜天錫(76년 社會大卒·조선일보 편집국장·本報 論說委員)=지난 6월 1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에 선임됨.

▲朴相吉(76년 法大卒·대검 수

사기획관)=지난 6월 7일 서울지검 3차장에 임명됨.

▲安永昱(77년 法大卒·부산지검 2차장)=지난 6월 7일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 임명됨.

▲林來玄(77년 法大卒·광주고검 차장)=지난 5월 27일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됨.

▲黃禹錫(77년 獸醫大卒·모교 수의학과 교수)=지난 6월 8일 제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됨.

▲宋熙永(78년 人文大卒·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지난 6월 1일 조선일보 사장실장에 선임됨.

▲趙大宇(79년 大學院卒·충남대 교수)=최근 충남대 경상대학장에 취임했으며, 충남대 경영대학원장과 경영경제연구소장을 겸임함.

▲姜炳國(82년 人文大卒·변호사)=지난 6월 18일 경향신문 정기주총에서 감사에 선임됨.

▲柳哲基(83년 社會大卒·서울경제신문 정경부장)=지난 6월 6일 머니투데이 금융신문 편집국장에 선임됨.

▲朴竣孝(85년 法大卒·대통령 민정수석실 행정관)=지난 6월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에 임명됨.

▲趙應天(85년 法大卒·대통령 민정수석실 행정관)=지난 6월 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에 임명됨.

(24면에 계속)

베르디를 사랑하는 「베르디아니」

음대 동문 및 재학생 4명 결성



오페라의 거장인 베르디의 노래를 전문으로 부르는 모임이 지난 1월 창단돼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鄭建采(93년 音大卒)·權正九(01년 音大卒)·許鐵(01년 音大卒)·동문, 李圭哲(음대 성악과 4년)·군 등 모교 음대 출신 동문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베르디아니(Verdiani)」는 국내 최초로 클래식음악에 경영원리를 도입, 연주·기획·관리를 분리해 국내 음악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공연을 가진 「베르디아니」는 오는 11월경 두 번째 정기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23면에 이어)

▲李俊鎬(24기 AMP·前대신투자신탁운용 사장)=지난 5월 29일 하나로종금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됨.

▲徐淸源(26기 AMP·국회의원)=지난 6월 2일 중앙대 총동창회 제11대 회장에 선출됨.

▲南相默(32기 AMP·한국공인회계사회 전무이사)=지난 6월 25일 열린 제2회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에서 상근부회장에 선임됨.

▲李範觀(24기 ACAD·대검 공안부장)=지난 5월 27일 인천지검장에 임명됨.

▲朴永淳(43기 ACAD·현대시멘트 상임감사)=지난 6월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준칙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행사·출간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충북 협회장·工大同窓會長)=지난 6월 2일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충북협회(충북도민회) 정기총회 및 충북출신 영전 인사 축하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효자효부에 대한 표창식을 가짐.

▲李榮德(52년 師大卒·월드컵



문화시민중앙협의회장)=지난 6월 19~20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2002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일 축구 저널리스트 세미나」를 가짐.

▲柳致松(53년 商大卒·대한민국 헌정회장)=지난 6월 19일 재향군인회관에서 「한반도 통일과 안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柳正烈(52년 文理大入·한국외대 명예교수)=지난 5월 15~18일 영국 KENT에 있는 LEED CASTLE에서 Oxford대학이 「걸프와 아시아(The Gulf and Asia)」를 주제로 개최한 비공개 원탁토론회에 참석함.

▲李相玉(57년 文理大卒·유엔한국협회장)=지난 6월 28~30일 부산 동의대에서 남북한 유엔 가입 10주년 기념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총회를 개최함.

▲申允植(59년 文理大卒·하나로통신 사장)=지난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 정보통신 서미트 2001 제1회 Mid Year Forum」에 참석,

기조연설을 함.

▲金承國(60년 文理大卒·단국대 총장)=지난 6월 25일 자매대학인 몽골국립대에서 5만 달러 상당의 치과 기자재 및 설비를 투입한 「몽골단국치과병원」 개원식을 가짐.

▲孫京植(61년 法大卒·제일제당 회장·本會副會長)=지난 6월 26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21세기 식품산업의 전망과 식품기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許 陞(62년 文理大卒·한국소비자보호원장)=지난 6월 7일 소보원 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지난 6월 18~1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한반도의 변화와 유럽」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가짐.

▲康容植(63년 法大卒·21세기방송연구소 이사장)=지난 6월 2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위성방송 출범과 매체간 공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柳莊熙(63년 商大卒·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지난 6월 9일 세라톤워커히에서 「세계화의 도전, 기회와 한국경제의 개방」을 주제로 하계 정책세미나를 가짐.

▲金重雄(64년 法大卒·현대경제연구원장)=지난 6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조업의 서비스컴퍼니화 전략」과 「가계 조사에 나타난 민간 소비심리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12회 새천년 경영전략세미나를 가짐.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7월 4일 중국 북경을 방문,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 개관식 행사를 개최하고, 시에젠화 환경장관과 양국간 환경산업기술교류방안에 대한 회담을 가짐. 또 6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 트리튼 환경장관과 제1차 한·독 환경장관회의를 갖고 환경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함.

▲李相圭(69년 文理大卒·LG화학 부사장·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장)=지난 6월 28일 서울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스티로폼 포장재의 분리수거-재활용 우수자 자체 시상식을 가짐.

▲金順杜(69년 獸醫大卒·한국야구르트 사장)=지난 6월 27일 암질병 치료를 위해 최근 개원한 일산의 국립암센터를 방문, 발전기금 5억원의 기탁식을 갖고 이중 1억원을 전달함.

▲李憲錫(70년 文理大卒·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지난 6월 7~8일 경기 의왕시 철도경영연구원에서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중국 철도부 과학연구원 공동 「제1회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를 개최함.

▲申尙澈(70년 法大卒·고전문학회의 교학원장)=지난 7월 10일 타워호텔 한국관 2층 아리수에서 「玄妙之道」를 주제로 제26회 관문논단을 발표함.

▲郭柄善(70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6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교육 위기의 해부-실체와 원인」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가짐.

▲李景台(70년 商大卒·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지난 6월 28일 홍콩 매리어트호텔에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짐.

▲羅薰善(71년 藥大卒·한국과학재단 전문위원)=지난 6월 9일 서울중앙병원에서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 창립총회를 가짐.

▲金龍文(72년 文理大卒·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장)=지난 6월 10일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활동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의정부1동 동서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통일안국사」를 방문하여 냉장고, 분유, 기저귀 등을 전달함.

▲鄭用德(73년 農大卒·모교행대원 교수·한국행정학회회장)=지난 6월 22~23일 용인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지방자치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짐.

▲柳貞順(73년 家政大卒·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지난 6월

23일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강당에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부설 빈민상담센터) 창립총회 겸 공청회를 가짐.

▲李根京(75년 商大卒·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지난 6월 26일 부산 기술신보 본점 회의실에서 (주)인츠커뮤니티 등 벤처기업 대표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짐.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부사장·한국광고주협회 부회장)=지난 5월 28일 성균관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국가 신인도와 기업IR 전략」에 관해 특강함.

▲曹興植(76년 社會大卒·모교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장)=지난 6월 8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학교 붕괴의 실상과 사회복지적 대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짐.

▲許 埴(85년 美大卒·전남대교수)=지난 6월 12~25일 서울 금산갤러리, 7월 2~8일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익명인간에 대한 역설적 탐구」라는 주제로 제7회 개인전을 가짐.

▲裴恩美(88년 美大卒·서양화가)=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관훈동 썬&문갤러리에서 제4회 개인전을 가짐.

▲卞弟男(89년 音大卒·이화여대 강사·대금정악 전수자)=지난 6월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대금 독주회를 개최, 대금독주곡 「時用別曲」「꿈」「回想」과 대금 산조(한주환류) 등을 선보임.

▲金泳淑(93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6월 9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멘델스존,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으로 일시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李昭殷(93년 音大卒·모교강사)=지난 7월 2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슈만,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모교 崔滿麟 명예교수

회고전서 조각·드로잉 작품 선보여

한국 추상조각의 1세대 작가인 모교 崔滿麟(58년 美大卒) 명예교수(사진)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순화동 호암갤러리에서 45년간의 작품세계를 되돌아 보는 회고전을 가졌다.

대표작인 「태」시리즈, 「점」시리즈, 「O」시리즈 등 조각 90여 점과 드로잉 30여 점 등 총 1백20여 점을 선보였다.

50~60년대 풍미했던 추상표현주의 운동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적인 미를 조각으로 표현해온 崔교수는 자연과 우주의 조화, 그리고 그 근원을 형상으로 드러내는 등 동양정신의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60년대 초반 한자의 획에서 드러나는 표상 이미지를 형상화한 「전, 지, 현, 황」시리즈와 장승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일, 월」시리즈를 통해 서구 미술의 극복과 우리 것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70년대 신체, 장기의 일부를



연상케 하거나 모태에서 느껴지는 생명 이미지를 조형화한 「태」시리즈, 80년대 이후 서로 다른 기운의 상생과 합일을 강조하는 태극의 형태를 띤 「O」시리즈 등이 대표작이다.

80년대 후반부터 환경조형물 제작에 적극 나서 국내 환경조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회고전에서는 야외 설치된 환경조형물들을 슬라이드에 담아 한 눈에 감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모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한 崔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 미대를 정년 퇴임했다.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김상일(94년 農生大卒)군·설향양=7월 15일 15시.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1년 3월 31일~2001년 4월 19일·一般: 2001년 4월 3일~2001년 4월 22일〉

회 장 단

▲고 문 金煥成=20만원
▲부회장 閔丙峻=1백만원
▲부회장 鄭大哲=50만원
▲감 사 朴英俊=30만원

상임이사

▲禹德昶경대원동창회장=20만원
▲朴英淑CHCN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권선거(90년 法大卒)=20만원
▲남승남(90년 看護大卒)=20만원
▲박영철(AMP 40기)=20만원
▲서규영(83년 法大卒)=20만원
▲유종목(78년 人文大卒)=20만원
▲이상일(85년 醫大卒)=20만원
▲이상현(97년 齒大卒)=20만원
▲이을석(EPPM 7기)=20만원
▲이종팔(80년 經營大卒)=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서원석78

◇社會科學大學

▲박종은85 ▲전상일80 ▲조현래77
▲최지성77 ▲홍석규79 ▲황주철77

◇自然科學大學

▲구본준78 ▲박우섭94

◇家政大學

▲박복순74 ▲박영숙72 ▲손숙미77
▲조순옥82 ▲조은자86

◇看護大學

▲김금순72 ▲송미순74 ▲이명선75
▲이춘자57

◇經營大學

▲김도련78 ▲김석기79 ▲김선구77
▲박명호76 ▲신용삼77 ▲임태희80
▲하부열78

◇工科大学

▲강 관64 ▲강광언65 ▲강성안62
▲강영국63 ▲강일우75 ▲강정환70
▲강행언65 ▲강현식73 ▲고명삼55
▲고문찬73 ▲공병재70 ▲곽삼영55
▲구자영58 ▲권문식77 ▲권수웅62
▲김 철58 ▲김광우65 ▲김국진70
▲김권식70 ▲김덕수55 ▲김방태64
▲김상식64 ▲김석기64 ▲김성중66
▲김송평68 ▲김수광63 ▲김억조74
▲김연호75 ▲김영남65 ▲김영운66
▲김용석59 ▲김용재61 ▲김인상71
▲김재화56 ▲김정근61 ▲김정식58
▲김정욱60 ▲김정철56 ▲김종근58
▲김종욱65 ▲김종욱78 ▲김주용63
▲김주홍51 ▲김태섭57 ▲김학제69

▲김형백61 ▲김효철64 ▲명태현50
▲문정규56 ▲문희성57 ▲박상기62
▲박성규57 ▲박성훈63 ▲박승빈69
▲박승재55 ▲박신구68 ▲박영하64
▲박영희61 ▲박웅대67 ▲박준병56
▲박준창49 ▲박중흥78 ▲박찬섭60
▲백이호67 ▲백형배53 ▲서상기70
▲서정훈55 ▲성낙정54 ▲승효상75
▲신승근64 ▲신훈철51 ▲심혜경58
▲안사은61 ▲안철호52 ▲양홍준69
▲어성준73 ▲오계환68 ▲우남용63
▲원정수57 ▲유광준74 ▲유기형71
▲유성삼65 ▲유용선61 ▲윤병양56
▲윤여익71 ▲윤재석63 ▲윤홍갑62
▲윤홍구70 ▲이건국68 ▲이계수67
▲이관수72 ▲이광재58 ▲이교일66
▲이구택69 ▲이기준61 ▲이동춘57
▲이만철60 ▲이문화72 ▲이범익68
▲이범주64 ▲이병휘54 ▲이봉규64
▲이상룡54 ▲이상주63 ▲이영희61
▲이원형74 ▲이정목56 ▲이종대63
▲이종훈57 ▲이창복61 ▲이태섭62
▲이환범62 ▲임병주56 ▲장동욱54
▲장명수56 ▲장산진55 ▲장세창69
▲장진양71 ▲장학순50 ▲전영우55
▲정대환69 ▲정병숙50 ▲정상근54
▲정성현71 ▲정연세57 ▲정연철57
▲정조섭61 ▲정하성60 ▲정현철57
▲조복제64 ▲조양래64 ▲조재문49
▲조정남67 ▲조창걸63 ▲조필제50
▲조형제55 ▲주종원57 ▲지 순58
▲진국봉68 ▲진대제74 ▲진행섭70
▲최용덕55 ▲최인재57 ▲최흥민56
▲추지석64 ▲추현출61 ▲편도권58
▲표상기65 ▲한대림64 ▲한수양71
▲한재소75 ▲한철종59 ▲함승호57
▲허영섭64 ▲현희현59 ▲홍영희58
▲황성혁65 ▲황일인63 ▲황종구62

◇農科大學

▲곽영구65 ▲곽영철65 ▲김사일57
▲김상원56 ▲김영종64 ▲김일종73
▲김진의65 ▲변종훈58 ▲서기호64
▲서병륜73 ▲손두식63 ▲송재관56
▲심완조61 ▲오세승57 ▲오세인59
▲유근학60 ▲이돈구69 ▲이수오74
▲이어연56 ▲이재현50 ▲이정식73
▲이정영56 ▲정주영74 ▲한정길70
▲함종한70

◇文理科大學

▲강현욱61 ▲고 건60 ▲구태희50
▲김건중70 ▲김기주58 ▲김동진70
▲김명자66 ▲김병익61 ▲김병일64
▲김상호62 ▲김성기67 ▲김성집58
▲김승의64 ▲김영배66 ▲김영웅67
▲김용국59 ▲김우현61 ▲김하중69
▲김형오71 ▲김희중67 ▲남시욱58
▲도준호65 ▲류지웅56 ▲민경환73
▲민병전56 ▲박동수53 ▲박동훈65
▲박맹호57 ▲박순국63 ▲박용안61
▲박한상48 ▲박희준70 ▲방석기70
▲서광석55 ▲송진혁65 ▲신현웅69
▲심봉관67 ▲양규모65 ▲이병삼65
▲이부영69 ▲이상옥57 ▲이어령56
▲이옥경73 ▲이용화57 ▲이인재72
▲이정두65 ▲이종길64 ▲이항렬65

▲임상원62 ▲임의신66 ▲임희섭59
▲장성주71 ▲장정환63 ▲전희전72
▲정병순62 ▲정준택58 ▲조남홍62
▲조영길62 ▲조원규62 ▲주진우74
▲최각규57 ▲최덕인59 ▲최병민75
▲최홍룡64 ▲하두봉56 ▲하영식58
▲한태길73 ▲허 선68 ▲홍남표73
▲홍영대71 ▲홍종화51

◇美術大學

▲박대순55 ▲박숙희62 ▲박항률74
▲성기점62 ▲윤형규63 ▲이종상63
▲황민자67

◇法科大學

▲강만수68 ▲강보현72 ▲고광우58
▲고학봉64 ▲구용완49 ▲권병일57
▲권영훈75 ▲김갑현49 ▲김경태63
▲김권택67 ▲김기인62 ▲김길중65
▲김대진63 ▲김도연63 ▲김도창47
▲김동규56 ▲김문희59 ▲김선중74
▲김성길64 ▲김성산58 ▲김승호66
▲김시영75 ▲김영대65 ▲김영삼65
▲김영일64 ▲김익하64 ▲김재철61
▲김정근64 ▲김정후61 ▲김종구63
▲김종상69 ▲김종식72 ▲김중웅64
▲김진익60 ▲김창근55 ▲김태경56
▲김태조58 ▲김학원70 ▲김현순58
▲김현채61 ▲김형선62 ▲김효종65
▲나대진71 ▲나석호57 ▲남상유59
▲동 훈57 ▲류시열61 ▲민병국63
▲민형기72 ▲박경우64 ▲박상기61
▲박선우64 ▲박순용68 ▲박용도61
▲박원진55 ▲박일재59 ▲박정서61
▲박종덕61 ▲박종렬66 ▲박종우62
▲박철근59 ▲박철언65 ▲방 현76
▲배억만58 ▲배재욱68 ▲변규철62
▲서경석71 ▲서삼영69 ▲서상희72
▲서승완64 ▲서원태72 ▲서재현71
▲서정석69 ▲서태영74 ▲설동훈51
▲손수익56 ▲송광수71 ▲송상현63
▲송영식69 ▲송용식55 ▲송재현64
▲신성순63 ▲신영무67 ▲신장순51
▲신정철56 ▲신학근66 ▲신희택75
▲안병기56 ▲안문태64 ▲안병수48
▲안종택77 ▲여동영64 ▲여상규77
▲오성환57 ▲오영권73 ▲오윤덕65
▲오제세72 ▲우정권66 ▲원우현65
▲원철희62 ▲유근원62 ▲유길수68
▲유인의65 ▲유종해54 ▲윤덕순63
▲윤석정71 ▲윤원석63 ▲윤일영56
▲윤재일55 ▲윤충근70 ▲은승기61
▲이건중76 ▲이경호65 ▲이광택75
▲이규장74 ▲이근식69 ▲이낙연74
▲이대공64 ▲이선우65 ▲이선우67
▲이성보79 ▲이세창61 ▲이순배62
▲이순복58 ▲이승우79 ▲이신섭66
▲이영덕73 ▲이영준61 ▲이원철79
▲이원호65 ▲이인제72 ▲이인표58
▲이재식74 ▲이정환75 ▲이주성63
▲이주영74 ▲이지수65 ▲이진세63
▲이창희72 ▲이충범82 ▲이태희64
▲이해봉67 ▲이호근66 ▲이효종63
▲임규운57 ▲임두빈57 ▲임인택63
▲임종선61 ▲장 호71 ▲장기택69
▲장병규57 ▲전상석48 ▲전선기64
▲정구영62 ▲정도출72 ▲정성호65

▲정세용78 ▲정우모60 ▲정재룡69
▲정지형62 ▲정형근68 ▲정취위66
▲정희준61 ▲제차룡64 ▲조규향64
▲조석제58 ▲조용구79 ▲조정식72
▲조형일73 ▲채대병67 ▲최강호71
▲최근선58 ▲최기정64 ▲최상엽61
▲최연희68 ▲최영광64 ▲최재훈53
▲추영일65 ▲한경국61 ▲한진유64
▲한창은64 ▲함영업66 ▲허 명72
▲허 준59 ▲허흥구69 ▲홍경용49
▲홍승환64 ▲홍종현68 ▲황규언65
▲황병기69 ▲황봉환77 ▲황이연61

◇師範大學

▲강신주55 ▲구창모55 ▲권청자37
▲김 숙68 ▲김남조51 ▲김동길61
▲김삼열58 ▲김삼옥51 ▲김상준52
▲김재은54 ▲김종기55 ▲민무일69
▲민재익56 ▲박송자67 ▲박영자50
▲박익두64 ▲박종달49 ▲박종세59
▲박창수55 ▲백승권67 ▲신성택62
▲신용래56 ▲신철순61 ▲심상학67
▲유자효75 ▲이원순49 ▲이웅백49
▲이재룡64 ▲이종욱68 ▲이춘구58
▲임공희68 ▲정경배62 ▲정주섭57
▲정호영71 ▲주일영49 ▲최종욱58
▲최진오66 ▲하순봉64 ▲한진희63
▲황철수51

◇商科大學

▲강문창68 ▲강수현62 ▲강신중64
▲강영주66 ▲강종호65 ▲고두모63
▲공정근59 ▲구선희60 ▲권오균53
▲권희구60 ▲권희택60 ▲기병태57
▲김경덕57 ▲김경모65 ▲김광선61
▲김규석59 ▲김기중61 ▲김뇌명70
▲김동영63 ▲김범수65 ▲김병기59
▲김봉규62 ▲김사철61 ▲김상희70
▲김석규57 ▲김성규63 ▲김승정64
▲김영대67 ▲김영수62 ▲김원길66
▲김운재58 ▲김운택49 ▲김재철66
▲김정태70 ▲김종국59 ▲김종국67
▲김종덕59 ▲김종욱62 ▲김종원61
▲김종창61 ▲김태범65 ▲김항덕65
▲김현주64 ▲김형수70 ▲김형영60
▲김홍구70 ▲김희석72 ▲나공목61
▲노명래58 ▲노재승61 ▲맹진성59
▲명동근52 ▲민경재59 ▲박길상72
▲박봉흥72 ▲박세민49 ▲박영구67
▲박영배75 ▲박옥근74 ▲박종석69
▲박중대57 ▲박창부65 ▲박현두64
▲배갑순48 ▲배경일73 ▲변창기58
▲서상록63 ▲서영교66 ▲서정원68
▲성하현63 ▲손수일65 ▲손정삼49
▲송기태56 ▲송인상35 ▲신동재58
▲신동혁63 ▲신명호50 ▲신복영59
▲신세길61 ▲신영철57 ▲신찬수61
▲신평재61 ▲심대평66 ▲심재엽71
▲심정구57 ▲안경태75 ▲안재동67
▲안재전61 ▲양만기68 ▲양승현48
▲오강욱60 ▲우두현67 ▲우순구57
▲우완식61 ▲우찬목59 ▲유영일57
▲유진우66 ▲유충식61 ▲유치송53
▲유호기68 ▲윤귀섭68 ▲윤승두43
▲윤은용63 ▲이경수74 ▲이광수54
▲이길우53 ▲이대원65 ▲이덕종65
▲이만수62 ▲이상근57 ▲이수익65

▲이순학68 ▲이연재66 ▲이영기70
▲이영서65 ▲이용성60 ▲이용휘61
▲이준근65 ▲이택섭56 ▲이필근65
▲이희순61 ▲임창열66 ▲임채주59
▲장기팔62 ▲장명섭53 ▲전영배58
▲전정구56 ▲정두채62 ▲정병호57
▲조경수64 ▲조대연53 ▲조문제65
▲조병해57 ▲조항원76 ▲좌승희71
▲주진표61 ▲지현균64 ▲진 념63
▲진철평63 ▲최수병63 ▲최정환55
▲최태규59 ▲추한식58 ▲한병무65
▲한석운58 ▲한일상66 ▲한찬수58
▲허 석65 ▲허남각60 ▲허병하62
▲허성길64 ▲허성용58 ▲홍면후59
▲홍성주64 ▲홍성철48 ▲홍순기54
▲황낙주65 ▲황동규72 ▲황병태58
▲황영기75 ▲황재철65 ▲황창연62
▲황창학59

◇獸醫科大學

▲김성수68 ▲김조웅57 ▲김창윤57
▲박기복59 ▲백문영68 ▲이강남74
▲이도필53 ▲임영일64 ▲임인선58
▲최영일66

◇藥學大學

▲강석진59 ▲강해석78 ▲공남식60
▲공영주63 ▲권 박65 ▲김규호61
▲김국립66 ▲김상렬48 ▲김성근59
▲김수경61 ▲김영호61 ▲김인수58
▲김한주61 ▲문경운59 ▲민주홍66
▲송창진58 ▲신화범58 ▲이가평64
▲이갑열57 ▲이계관70 ▲이기연62
▲이민화59 ▲이상은58 ▲이승한71
▲정미화63 ▲정지석64 ▲채영주56
▲최덕일65 ▲최현식64 ▲허 백57
▲허 상62 ▲허 용47 ▲홍기정64

◇音樂大學

▲신수정63 ▲이성만51 ▲이성천65
▲이재숙63 ▲이종국65

◇醫科大學

▲강내열62 ▲강대성59 ▲강세윤65
▲강신일64 ▲고원순74 ▲권이혁47
▲김광원72 ▲김근우67 ▲김기선71
▲김병찬60 ▲김병천71 ▲김상우68
▲김세경45 ▲김원경54 ▲김원동69
▲김원석65 ▲김종희56 ▲김주일48
▲김진조45 ▲김찬영52 ▲맹국영74
▲문국진55 ▲문효중52 ▲민병철52
▲박성태64 ▲박영태76 ▲박용현68
▲박재형72 ▲박효일64 ▲백남선73
▲백상호59 ▲변상현57 ▲서병준54
▲손광현58 ▲손기섭57 ▲손춘호53
▲송영명73 ▲송영철69 ▲신명희62
▲신순철68 ▲신순현68 ▲심완섭70
▲안병현73 ▲유인상53 ▲윤정철65
▲이 영63 ▲이갑순61 ▲이경지53
▲이동렬49 ▲이동우56 ▲이동훈41
▲이명덕73 ▲이병주67 ▲이상용70
▲이선형76 ▲이성우59 ▲이순형62
▲이원표73 ▲이필우59 ▲이한구54
▲장돈식62 ▲장윤석55 ▲전동원64
▲전하용59 ▲정경태59 ▲정동철60
▲조강희65 ▲지삼봉61 ▲차창일70
▲최 황69 ▲최관환58 ▲최세준59

▲최용목67 ▲최재득63 ▲추광철66
▲하권익63 ▲한동수65 ▲한병제64
▲한원호58 ▲한진석78 ▲홍경표78
▲홍영수73 ▲홍영표58

◇齒科大學

▲강근수70 ▲강호경57 ▲강효식61
▲구옥경68 ▲권오양80 ▲김 일55
▲김경애61 ▲김길태71 ▲김봉호60
▲김상숙77 ▲김성룡64 ▲김성수74
▲김세동67 ▲김인수51 ▲김정근65
▲김정범66 ▲김중우77 ▲김종철77
▲김중훈73 ▲김주환47 ▲김지호65
▲김치영80 ▲김홍식61 ▲남용욱55
▲라윤영66 ▲박금태64 ▲박기성59
▲박석주80 ▲박용준58 ▲박용호80
▲박인출77 ▲박주호64 ▲백순지69
▲부삼환64 ▲서현경78 ▲성재현72
▲성훈경59 ▲손 근71 ▲송정보67
▲송춘근70 ▲양일수79 ▲양희일60
▲이건섭58 ▲이규철68 ▲이기택69
▲이범권61 ▲이병우82 ▲이병한65
▲이승부68 ▲이승연67 ▲이승우61
▲이언호66 ▲이용오60 ▲이원철69
▲이정호66 ▲이한무71 ▲임동욱73
▲임순모76 ▲임태홍55 ▲전영섭66
▲전태수60 ▲정광현63 ▲정기근57
▲정종선61 ▲정종평69 ▲조성복59
▲조행자70 ▲주관철65 ▲최경명59
▲최성근71 ▲최옥환61 ▲한광수69
▲한상욱64 ▲한성훈66 ▲허 택77
▲허연욱59 ▲홍경택71 ▲황의강67

◇大學院

▲김명관89 ▲김석웅81 ▲김응진49
▲남덕우56 ▲변정환85 ▲윤재한62

◇經營大學院

▲김윤택70 ▲김임식70 ▲김호봉69
▲박정남74 ▲신길수68 ▲이경훈68
▲이광수77 ▲이병재69 ▲이정부71
▲이준학70 ▲이찬하67 ▲장몽인67
▲장태환69

◇保健大學院

▲김남주68 ▲김종오82 ▲김초강72
▲박희서79 ▲여현태67 ▲이선동88

◇司法大學院

▲강운호70 ▲김영준70 ▲김용환68
▲석용진67 ▲이기영69

◇行政大學院

▲김광립80 ▲김세욱83 ▲신순우74
▲유상철72 ▲이준용75 ▲이치엽61
▲전주식64 ▲정상현64 ▲정여철74

◇環境大學院

▲박상우75 ▲박춘배79 ▲윤화일81
▲임승달77

◇최고경영자과정

▲권기술9 ▲김진재16 ▲박원홍40
▲유삼남24

일 반

◇人文大學

▲강인자86 ▲곽재성83 ▲김기태85
▲김대환85 ▲김동철82 ▲김범승88
▲김상우88 ▲김상호85 ▲김순호92
▲김연식88 ▲김종하69 ▲김태현61
▲김환국83 ▲남지대80 ▲류 경90
▲문화경97 ▲박용수88 ▲박정규86

▲변원일76 ▲신동수89 ▲안범진90
▲안병용89 ▲안병욱76 ▲엄성연93
▲오성기82 ▲원해영87 ▲유명숙77
▲유재화95 ▲이기학87 ▲이범규82
▲이영훈79 ▲이종경79 ▲이종범80
▲이주영66 ▲정말순84 ▲정영철84
▲정해경67 ▲조철원80 ▲조해영88
▲현무환81 ▲홍영호79 ▲황은경85
▲황호선80

◇社會科學大學

▲강 철82 ▲강성빈83 ▲강창재79
▲구성재84 ▲권혁규88 ▲길재욱82
▲김갑철88 ▲김광덕66 ▲김광수81
▲김기범85 ▲김신구80 ▲김수영86
▲김용숙83 ▲김정상88 ▲김주영97
▲김진덕85 ▲김진호88 ▲김태기80
▲김태윤99 ▲김태희97 ▲김학로83
▲김현섭83 ▲남승엽85 ▲류성환97
▲문형진44 ▲민경철83 ▲민선식82
▲박근제78 ▲박노익88 ▲박인호91
▲박재홍90 ▲박종세89 ▲배익준92
▲서주석81 ▲손정표99 ▲신수정99
▲신은호86 ▲심영아94 ▲안백훈86
▲엄재규93 ▲오철수87 ▲위성일89
▲유두선87 ▲유승희89 ▲윤현중88
▲이광훈89 ▲이근태89 ▲이대성98
▲이면재84 ▲이병로82 ▲이상원83
▲이상원93 ▲이재득98 ▲이지수87
▲이진우78 ▲이해수80 ▲이호준90
▲이호진85 ▲이홍엽95 ▲임병수89
▲장덕주79 ▲전성복96 ▲전정하96
▲전형남85 ▲전홍진83 ▲정 현91
▲정규익77 ▲정수용76 ▲정원호79
▲정충기85 ▲정현욱91 ▲정희수86
▲조석현87 ▲조유현90 ▲조인식89
▲조한욱88 ▲최광해78 ▲최병준80
▲최정규89 ▲최지선96 ▲최학철89
▲최형근79 ▲최홍운84 ▲한성룡88
▲한진수96

◇自然科學大學

▲강해성83 ▲권경훈84 ▲김상길89
▲김윤수91 ▲김정기87 ▲김주영87
▲김혁주82 ▲김홍만80 ▲박병관98
▲변희석84 ▲송대업85 ▲신기순89
▲신양미86 ▲안수한92 ▲엄성화89
▲이동일88 ▲이묘재76 ▲이병홍76
▲이봉완87 ▲이성진87 ▲이성호98
▲이재용86 ▲이현식78 ▲장영순87
▲전용호79 ▲정동근88 ▲정승욱88
▲조유현88 ▲조윤희88 ▲채영기89
▲최달영83 ▲한성호93 ▲한창우79
▲허영덕77 ▲홍경환81 ▲황광섭76
▲황성순99

◇家政大學

▲고영숙74 ▲고영자64 ▲김남미77
▲김성희73 ▲김정희76 ▲방효석61
▲심복자81 ▲이성란87 ▲이신영62
▲이중희62 ▲이형숙73 ▲이혜숙72
▲이화령81 ▲전영숙82 ▲조영옥62
▲차진아88 ▲최순옥65 ▲한인수62

◇看護大學

▲강성숙82 ▲금명자80 ▲김 숙93
▲김기자59 ▲김영란69 ▲김옥련70
▲김정란87 ▲김정순77 ▲김정희89
▲김현아83 ▲김혜경79 ▲김화순74
▲남승남90 ▲도병순86 ▲박미정79
▲박정은89 ▲변남수88 ▲오두남93
▲이상미78 ▲이숙자55 ▲이영자68
▲이용아55 ▲이은숙84 ▲이정희95
▲이지애86 ▲이창우53 ▲이추월54
▲이혜진94 ▲임난영71 ▲장명숙68

▲정명자60 ▲정희선73 ▲지영숙72
▲최경화79 ▲허 영74 ▲현희수56

◇經營大學

▲강의석84 ▲고대화86 ▲구자일93
▲국기호83 ▲김동배89 ▲김병민87
▲김봉오82 ▲김성준78 ▲김세연95
▲김운호82 ▲김태식97 ▲김현숙88
▲김홍국79 ▲문영국86 ▲박찬호93
▲박훈기86 ▲배재현85 ▲변은창95
▲석원주90 ▲손병규81 ▲손병재86
▲송호찬82 ▲신종열85 ▲유병오84
▲유재화85 ▲윤병은76 ▲윤정환86
▲이강원95 ▲이강호86 ▲임정오76
▲장보훈87 ▲제준환79 ▲조승호85
▲조현탁88 ▲차승원97 ▲최병두78
▲최성원82 ▲최원국80 ▲최재무93
▲한선구85 ▲홍종욱99

◇工科大學

▲강남식77 ▲강민구91 ▲강석태78
▲강성훈86 ▲강순욱87 ▲강신원79
▲강영수70 ▲강영택65 ▲강윤걸57
▲강종렬89 ▲강주년99 ▲강준우80
▲강호문72 ▲고광렬55 ▲고근희58
▲고영길89 ▲고영호72 ▲고원룡68
▲고재간99 ▲고충준65 ▲공용성79
▲곽민한88 ▲곽한우77 ▲권기수73
▲권봉수66 ▲권성건80 ▲권성준98
▲권성환75 ▲권순덕71 ▲권순목57
▲권순택82 ▲권용원82 ▲권혁주78
▲김강열93 ▲김건남77 ▲김건희73
▲김계식54 ▲김광배74 ▲김광태78
▲김규철76 ▲김기남77 ▲김기욱83
▲김남길65 ▲김대식77 ▲김덕초64
▲김도완95 ▲김동건89 ▲김동수67
▲김동식88 ▲김동유88 ▲김동필49
▲김동호76 ▲김두현85 ▲김만식73
▲김민규81 ▲김민태98 ▲김병길66
▲김병열79 ▲김봉중62 ▲김상수77
▲김상필64 ▲김성로56 ▲김성보88
▲김성호82 ▲김성환76 ▲김성환87
▲김수철73 ▲김시근76 ▲김신용81
▲김신태67 ▲김양성82 ▲김연철71
▲김영근72 ▲김영남70 ▲김영배82
▲김영선77 ▲김영웅72 ▲김영준66
▲김영진65 ▲김영철57 ▲김용구77
▲김용근79 ▲김용곤83 ▲김용민95
▲김용백65 ▲김용익54 ▲김원서81
▲김원식72 ▲김원일67 ▲김원태61
▲김유희61 ▲김인규89 ▲김인선69
▲김일두64 ▲김재설62 ▲김재섭83
▲김재정83 ▲김재환87 ▲김정구69
▲김정수70 ▲김정원70 ▲김정인94
▲김정일64 ▲김정효64 ▲김정훈97
▲김제영76 ▲김종진63 ▲김종재61
▲김종호76 ▲김종희49 ▲김주민95
▲김주영59 ▲김주현64 ▲김준철67
▲김준호64 ▲김지덕70 ▲김지환56
▲김지환82 ▲김진근75 ▲김진원72
▲김진원90 ▲김진철72 ▲김춘길62
▲김춘자63 ▲김태문59 ▲김태업72
▲김태영78 ▲김태한95 ▲김택환51
▲김평호65 ▲김학규76 ▲김학철74
▲김한길85 ▲김한상83 ▲김한성92
▲김항근56 ▲김행련73 ▲김현영85
▲김현일74 ▲김형만80 ▲김형만96
▲김호성70 ▲김홍수50 ▲김화곤77
▲김희준90 ▲김희철91 ▲나덕주71
▲나종택57 ▲남공희57 ▲남군현53
▲남궁석56 ▲남기홍83 ▲남삼국69
▲남승운88 ▲남정수71 ▲남준우56
▲노규환62 ▲노명일98 ▲노무수67
▲노병완56 ▲노용래89 ▲노일현72
▲노정선66 ▲노철웅70 ▲노홍조56

▲류인재81 ▲류춘근85 ▲문승현79
▲문영수82 ▲문정삼87 ▲문준희92
▲문한규65 ▲문홍식92 ▲민병준82
▲민병찬46 ▲박관호87 ▲박광덕64
▲박기웅66 ▲박동구81 ▲박동만63
▲박동진71 ▲박명식73 ▲박명철83
▲박민수92 ▲박병하80 ▲박봉철67
▲박상집82 ▲박성근81 ▲박승근67
▲박시흥82 ▲박신동89 ▲박여종72
▲박영근71 ▲박영석86 ▲박영우84
▲박영준67 ▲박용규62 ▲박용태72
▲박응준82 ▲박인섭77 ▲박재면60
▲박재서72 ▲박정래88 ▲박정훈95
▲박제승88 ▲박종률80 ▲박종택62
▲박창룡70 ▲박창용71 ▲박철수65
▲박향태72 ▲박현렬71 ▲박현빈70
▲박형호88 ▲박화규81 ▲박홍철65
▲박희규58 ▲박교윤71 ▲방용일69
▲방정섭69 ▲배무현76 ▲배영수77
▲백문석89 ▲백병훈74 ▲백선욱66
▲백승하85 ▲백승한75 ▲백원석85
▲백지우97 ▲백홍열75 ▲변영삼81
▲변영화63 ▲변재용81 ▲변종오81
▲서경석56 ▲서동한89 ▲서상돈80
▲서익석57 ▲서정철88 ▲석민수66
▲석효경73 ▲선우중호83 ▲설순지93
▲설희순66 ▲성낙현75 ▲성재경57
▲성준용71 ▲성태홍72 ▲성택룡83
▲성현택89 ▲손 훈82 ▲손상원77
▲손승래58 ▲손준권75 ▲송 진76
▲송기국76 ▲송병래61 ▲송병록83
▲송현석66 ▲송호식73 ▲송효준97
▲신광재91 ▲신기조43 ▲신대승61
▲신덕철72 ▲신동식77 ▲신동엽74
▲신동현85 ▲신상준89 ▲신성렬87
▲신수봉83 ▲신양호75 ▲신영수78
▲신윤승78 ▲신정철73 ▲신종식84
▲신춘식61 ▲심풍수80 ▲안광용80
▲안사섭67 ▲안상규89 ▲안영구69
▲안용호93 ▲안우희66 ▲안태준91
▲양 갑72 ▲양동기85 ▲양세학81
▲양승무70 ▲양승철94 ▲양점식86
▲어덕준83 ▲여인선79 ▲연관희93
▲오석영94 ▲오성근80 ▲오신남64
▲오영철93 ▲오인택65 ▲오창국98
▲오치재74 ▲오태규78 ▲우경호86
▲우상룡76 ▲우혁근89 ▲원성필79
▲원형재75 ▲위영인66 ▲유경희69
▲유교환61 ▲유병동99 ▲유병석90
▲유성열81 ▲유승빈71 ▲유승준67
▲유영창80 ▲유재근74 ▲유제인79
▲유중희57 ▲유화영92 ▲윤상철65
▲윤석호55 ▲윤용석61 ▲윤인섭71
▲윤정목67 ▲윤종철89 ▲윤지규58
▲윤형진73 ▲이 항87 ▲이 호79
▲이강명70 ▲이강주87 ▲이건영51
▲이건형80 ▲이경보50 ▲이경상59
▲이경준96 ▲이경한69 ▲이광제71
▲이광진71 ▲이근명67 ▲이근호74
▲이길순69 ▲이길형84 ▲이덕기43
▲이덕림65 ▲이덕현59 ▲이동권75
▲이동녕61 ▲이동찬63 ▲이두식80
▲이두호95 ▲이명식57 ▲이명진66
▲이병락75 ▲이보호61 ▲이봉주71
▲이봉희77 ▲이상익46 ▲이상준80
▲이상춘76 ▲이석주66 ▲이선행63
▲이성배82 ▲이성호81 ▲이세혁70
▲이수곤64 ▲이수원61 ▲이순주64
▲이승무65 ▲이승욱95 ▲이승환67
▲이연석84 ▲이연주97 ▲이영욱79
▲이영윤74 ▲이영일70 ▲이영재69
▲이영재72 ▲이영주98 ▲이완상58
▲이용수79 ▲이용우67 ▲이용호76
▲이우길67 ▲이우혁87 ▲이원구89
▲이은현83 ▲이응목62 ▲이익효65

▲이인석77 ▲이재봉81 ▲이재욱65
▲이재은65 ▲이재철83 ▲이재준79
▲이재형71 ▲이재호99 ▲이정규66
▲이정우56 ▲이정일65 ▲이준근62
▲이준대82 ▲이종수79 ▲이주협88
▲이준원75 ▲이준환66 ▲이중호82
▲이중화74 ▲이진수79 ▲이창규66
▲이충국83 ▲이충형79 ▲이태근78
▲이태환79 ▲이택승88 ▲이한정85
▲이한진77 ▲이해익49 ▲이현식88
▲이호경80 ▲이호순68 ▲이홍재70
▲이희달77 ▲이희철95 ▲인용재69
▲임민수70 ▲임용규66 ▲임종엽66
▲임종혁64 ▲임재영87 ▲임태원49
▲임환준81 ▲장광엽83 ▲장덕수69
▲장도익69 ▲장동립64 ▲장문현63
▲장병준72 ▲장석주86 ▲장원태76
▲장인식82 ▲장철식55 ▲장철현62
▲장현갑73 ▲전광병78 ▲전근주74
▲전병환88 ▲전복현68 ▲전상수76
▲전성욱88 ▲전영국66 ▲전홍우74
▲정 준66 ▲정규홍86 ▲정길모85
▲정동철82 ▲정명근69 ▲정문범65
▲정병하76 ▲정봉수63 ▲정성준64
▲정성립72 ▲정수민74 ▲정수현73
▲정연호80 ▲정영훈70 ▲정용수97
▲정용재88 ▲정익식70 ▲정인준64
▲정인택66 ▲정재관61 ▲정재구46
▲정종대63 ▲정준덕87 ▲정한모75
▲정한중81 ▲정현생68 ▲정현우97
▲정형배77 ▲정호상63 ▲정환구49
▲조관식82 ▲조국영96 ▲조남일65
▲조대영80 ▲조동혁60 ▲조시흥62
▲조상대75 ▲조성룡84 ▲조영근74
▲조영길71 ▲조영선67 ▲조영종83
▲조영현96 ▲조영호80 ▲조영호82
▲조용태76 ▲조정상99 ▲조정현94
▲조정희90 ▲조종현50 ▲조주현78
▲조태홍78 ▲조태훈81 ▲조한구73
▲조한근60 ▲조효상70 ▲주상선77
▲주영재76 ▲주재호82 ▲주희전47
▲지영조78 ▲지대연65 ▲진영안64
▲진영준74 ▲차원갑53 ▲차장욱65
▲차재명78 ▲채명규69 ▲천남중69
▲최 민85 ▲최기언78 ▲최기영78
▲최동환68 ▲최문기74 ▲최병국74
▲최병길75 ▲최상현81 ▲최석경91
▲최석영91 ▲최성만42 ▲최성식89
▲최성일66 ▲최수준73 ▲최시정59
▲최영식56 ▲최영태56 ▲최영휴78
▲최용환91 ▲최원철91 ▲최은철81
▲최의원58 ▲최인호57 ▲최재호84
▲최재호96 ▲최지혁98 ▲최창순70
▲최희장64 ▲하경철56 ▲하성한61
▲하영환51 ▲하용진62 ▲하준환55
▲한두욱79 ▲한만엽80 ▲한보식50
▲한상욱72 ▲한상조57 ▲한상준78
▲한성갑56 ▲한성봉81 ▲한영진83
▲한종희88 ▲한창진75 ▲허 영74
▲허강현85 ▲허병구42 ▲허익도70
▲현덕훈82 ▲홍계성86 ▲홍남중95
▲홍대형69 ▲홍만기58 ▲홍성룡87
▲홍성범80 ▲홍성수86 ▲홍순용76
▲홍재경69 ▲황 철75 ▲황광웅63
▲황규백97 ▲황덕규70 ▲황병구48
▲황순택76 ▲황윤언83 ▲황장연90
▲황정하76 ▲황정한69 ▲황정현60
▲황정현96 ▲황종일75 ▲황철수66
▲황희양73

◇農科大學

▲강광희63 ▲강대규55 ▲계경성71
▲고태환69 ▲고현우75 ▲곽원석75
▲곽중삼69 ▲권상필71 ▲김 철95
▲김갑근72 ▲김갑성47 ▲김경동80

▲김계명67 ▲김규식75 ▲김규환52
▲김기수61 ▲김나섭59 ▲김무열71
▲김미혜67 ▲김복진64 ▲김순규69
▲김승준65 ▲김연복63 ▲김영배66
▲김영배65 ▲김영상64 ▲김영일69
▲김완배75 ▲김용찬61 ▲김의철76
▲김재하77 ▲김정호56 ▲김정환66
▲김종무63 ▲김철기78 ▲김철영64
▲김현영65 ▲김홍렬54 ▲김후근59
▲남구한64 ▲복세균70 ▲문성철62
▲민경복65 ▲민원동69 ▲민중석64
▲박기수78 ▲박낙희91 ▲박남중59
▲박병두79 ▲박빈수56 ▲박상홍59
▲박순홍91 ▲박영현67 ▲박용재71
▲박원욱70 ▲박정덕59 ▲박정원62
▲박종문71 ▲박종민67 ▲박준식79
▲박천사56 ▲박성남78 ▲방수자66
▲방형구71 ▲배동근64 ▲서완수64
▲서정탁60 ▲성기준69 ▲성명제72
▲송계원48 ▲송기철78 ▲송병권75
▲송영달59 ▲송영수53 ▲송춘중59
▲신경수88 ▲신기철78 ▲신덕현71
▲신해상70 ▲신희순76 ▲안건용56
▲안수구77 ▲안승요55 ▲안형철97
▲양재승74 ▲양준식69 ▲양호석63
▲오원용60 ▲오홍수60 ▲원후식62
▲유성근67 ▲유신상60 ▲유지성63
▲유혁근69 ▲윤기민72 ▲윤병성59
▲윤성원76 ▲윤여홍83 ▲윤중식69
▲윤효직61 ▲이강남65 ▲이경원65
▲이관호68 ▲이규현66 ▲이덕남74
▲이덕원74 ▲이동찬67 ▲이미순60
▲이범재69 ▲이봉대60 ▲이석렬96
▲이성목64 ▲이승경79 ▲이영문56
▲이용훈79 ▲이원규63 ▲이재성66
▲이정민95 ▲이종기64 ▲이종호70
▲이택구59 ▲이학로72 ▲이현중94
▲이현수73 ▲임승수78 ▲임용섭94
▲장성구77 ▲장원환60 ▲장형준89
▲전현기71 ▲정규용49 ▲정돈철72
▲정민환70 ▲정봉진77 ▲정상용97
▲정세진79 ▲정영근91 ▲정용복55
▲정우현80 ▲정조래57 ▲정진구69
▲정태수89 ▲정희석64 ▲제상우89
▲조재명56 ▲조진태53 ▲천기만77
▲최동준77 ▲최예환65 ▲최정열78
▲하인환55 ▲한기하56 ▲한길영67
▲한상룡64 ▲한상욱61 ▲한춘연56
▲한호석96 ▲허문도79 ▲현중섭69
▲홍석인63 ▲홍성근61 ▲황장수91
▲황철갑61

◇文理科大學

▲강재인59 ▲강진원59 ▲고광삼72
▲고광희71 ▲고문중74 ▲고병국50
▲고상빈57 ▲공대식60 ▲곽광수65
▲구병식50 ▲구봉회66 ▲권혁정63
▲김 훈66 ▲김경준62 ▲김관식62
▲김동일62 ▲김명수59 ▲김묘욱57
▲김무창61 ▲김복주64 ▲김봉영62
▲김상욱72 ▲김세기70 ▲김순섭61
▲김시창66 ▲김영재61 ▲김영철61
▲김영철71 ▲김용문72 ▲김용술66
▲김용웅69 ▲김윤환64 ▲김은성70
▲김인식67 ▲김재실69 ▲김정환65
▲김주현67 ▲김진민54 ▲김차균64
▲김찬근73 ▲김철남64 ▲김철수61
▲김춘석73 ▲김치강63 ▲김치곤57
▲김학중54 ▲김학철61 ▲김형기74
▲김형렬61 ▲김형태63 ▲김홍철66
▲김훈수49 ▲김홍기57 ▲김홍수61
▲남대국67 ▲남상규71 ▲노현희62
▲문 룡58 ▲문영순55 ▲문인형64
▲민경천50 ▲박건우66 ▲박광준62
▲박권상52 ▲박기성63 ▲박영혜65

▲박영훈68 ▲박원규67 ▲박원구58
▲박재길75 ▲박재우68 ▲박정국75
▲박종수71 ▲방 근55 ▲배기성68
▲백상기70 ▲변광수65 ▲변종서59
▲복진태74 ▲서범주63 ▲서정욱64
▲성백인66 ▲손문자62 ▲송기중65
▲송세호67 ▲신동우75 ▲심재형63
▲안계춘61 ▲안사균62 ▲엄광석73
▲엄영섭70 ▲엄정임67 ▲염태호63
▲우창웅57 ▲원용문66 ▲위인숙75
▲유광식62 ▲유승현73 ▲유진당58
▲유형진63 ▲유재석70 ▲이광소62
▲이광수55 ▲이광수59 ▲이규일67
▲이근남72 ▲이기백47 ▲이달용70
▲이대희61 ▲이도영61 ▲이돈형63
▲이동녕60 ▲이명재65 ▲이민성58
▲이병현58 ▲이석우54 ▲이수호57
▲이영래64 ▲이용길66 ▲이용우70
▲이용욱60 ▲이의호65 ▲이재술61
▲이정린48 ▲이종한69 ▲이준모70
▲이찬용66 ▲이찬대67 ▲이철우63
▲이해구31 ▲이효량67 ▲이희열71
▲임동원61 ▲임옥빈74 ▲임형택66
▲장갑석67 ▲장문영65 ▲장병길49
▲장병우73 ▲장석준68 ▲장세열71
▲장세현45 ▲장윤경56 ▲장종표60
▲장호완69 ▲전대식57 ▲전순규59
▲정 광66 ▲정 탄70 ▲정경재68
▲정국성66 ▲정석권70 ▲정연국68
▲정영일63 ▲정정영66 ▲정춘영56
▲정학성72 ▲정해일62 ▲조무현72
▲조순지57 ▲조용호58 ▲조장호65
▲주영길71 ▲주영태64 ▲지충상75
▲채상식74 ▲채효진70 ▲최 웅73
▲최남석73 ▲최봉석73 ▲최선진62
▲최정우68 ▲하인경70 ▲한말숙55
▲한상복70 ▲홍성길64 ▲홍순모56
▲홍정숙58 ▲홍주봉73 ▲황연익61
▲황영애70 ▲황정모61

◇美術大學

▲강남미74 ▲강영봉61 ▲고혜영99
▲곽순화76 ▲곽준희99 ▲구 상89
▲권달술66 ▲김 현78 ▲김도원55
▲김동선92 ▲김선미93 ▲김수연89
▲김영태66 ▲김정자65 ▲김태영91
▲김형주70 ▲김혜원60 ▲나경문56
▲마서연60 ▲민경갑57 ▲박광필90
▲박귀현65 ▲박선완62 ▲박연선97
▲박재호63 ▲박현일96 ▲백연수98
▲백한수91 ▲변대성59 ▲변영혜62
▲송윤희58 ▲안병숙71 ▲오영희75
▲오은주67 ▲우병탁64 ▲윤남순58
▲윤영철86 ▲윤형실59 ▲이강소65
▲이경욱68 ▲이동용88 ▲이명희72
▲이성도81 ▲이성은86 ▲이영애70
▲이주숙74 ▲이춘만62 ▲이태영65
▲전석진59 ▲정경원75 ▲정수아86
▲정욱장68 ▲정원기68 ▲정형택60
▲정효진56 ▲정희숙99 ▲최국병66
▲최성숙68 ▲추명희74 ▲하도홍87
▲한형석95 ▲현대진91 ▲홍영인96
▲황우철88

◇法科大學

▲강기철54 ▲강동호56 ▲강이수63
▲강종원60 ▲곽희열81 ▲권순형91
▲권영로59 ▲권영상62 ▲김광현58
▲김근태57 ▲김기형66 ▲김덕원66
▲김동건69 ▲김두표73 ▲김명식60
▲김병룡89 ▲김상준71 ▲김선병85
▲김선철85 ▲김성영87 ▲김순중57
▲김승욱64 ▲김신행61 ▲김영상59
▲김용기56 ▲김용준59 ▲김용환76
▲김윤봉76 ▲김응용64 ▲김인만85

▲김인중61 ▲김일덕60 ▲김재률39
▲김재훈60 ▲김정삼76 ▲김정현60
▲김정환57 ▲김종운76 ▲김주욱57
▲김진병89 ▲김찬동67 ▲김창국60
▲김철규62 ▲김철우83 ▲김철진58
▲김태병89 ▲김형두66 ▲남기주67
▲노인수60 ▲노태호70 ▲도용락68
▲류두현65 ▲문창성72 ▲민정기47
▲박 진78 ▲박노정78 ▲박병민73
▲박보무61 ▲박석주62 ▲박승욱63
▲박영현73 ▲박용규77 ▲박원철76
▲박은석67 ▲박정선64 ▲박준모88
▲박학수55 ▲박행용74 ▲박환일75
▲배용재78 ▲서덕모77 ▲서상수64
▲서상현55 ▲서재국64 ▲석성환59
▲소진철53 ▲소철룡72 ▲손영재65
▲손익수70 ▲송남석62 ▲송평근88
▲신동승63 ▲신승남66 ▲신용한61
▲신현정62 ▲심봉관69 ▲안덕규68
▲안동호49 ▲안병익69 ▲안병한61
▲안재영74 ▲안재홍64 ▲양봉석72
▲양시경88 ▲오상길62 ▲오세빈72
▲오세현62 ▲오홍주74 ▲우동석99
▲유 언67 ▲유만근64 ▲유영상86
▲유원규75 ▲유원석75 ▲유정석70
▲유대길67 ▲윤익수57 ▲이경호73
▲이교선55 ▲이규완67 ▲이기영65
▲이미현63 ▲이민수55 ▲이상완68
▲이상원64 ▲이성범74 ▲이소라68
▲이승용64 ▲이승훈64 ▲이용현50
▲이종진51 ▲이종환63 ▲이진아99
▲이진형61 ▲이창은94 ▲이춘원68
▲이화무59 ▲이흥구63 ▲임동철72
▲임희목73 ▲장준봉60 ▲전영석83
▲정건용73 ▲정구환77 ▲정남희67
▲정덕홍72 ▲정병건67 ▲정선숙63
▲정영화65 ▲정은환71 ▲정재일56
▲정해남76 ▲정희준63 ▲조병지50
▲조세영67 ▲지석영58 ▲진성철66
▲차한성77 ▲채수철71 ▲천대승56
▲최거훈60 ▲최병무63 ▲최상욱83
▲최승희67 ▲최영도61 ▲최윤희66
▲최정현62 ▲최종원76 ▲최형준56
▲한경수76 ▲한기택81 ▲한만춘42
▲한무근66 ▲한세권58 ▲황규연86
▲황의표55 ▲황재성69

◇師範大學

▲강은숙65 ▲고영신80 ▲고태흠55
▲구본환76 ▲구현숙78 ▲권경안86
▲권봉순59 ▲권영호60 ▲권정득40
▲권한상94 ▲권해준73 ▲권홍수88
▲김계희43 ▲김귀식59 ▲김규식76
▲김길순65 ▲김남욱60 ▲김동호66
▲김명자45 ▲김무용64 ▲김민정86
▲김병연76 ▲김상섭85 ▲김상원93
▲김상윤83 ▲김상호40 ▲김서령82
▲김선양57 ▲김순동56 ▲김승재75
▲김안중72 ▲김영수91 ▲김영지72
▲김영태57 ▲김영희72 ▲김장천72
▲김재웅80 ▲김정아70 ▲김정완57
▲김정욱83 ▲김정훈95 ▲김종욱39
▲김준한65 ▲김지선72 ▲김창순43
▲김판금66 ▲김학수40 ▲김현식83
▲김형구60 ▲김혜우69 ▲김혜정95
▲나명환90 ▲남궁기41 ▲남복희43
▲노기홍88 ▲노일암39 ▲류은선92
▲문계동57 ▲민영문81 ▲박갑순57
▲박광재89 ▲박명하85 ▲박명학66
▲박영오70 ▲박영태76 ▲박용현57
▲박인자70 ▲박재공69 ▲박정자54
▲박종근64 ▲박종서61 ▲박지원45
▲박대화66 ▲박하성87 ▲박효석74
▲박희동75 ▲백길웅68 ▲백청호68
▲변재익65 ▲변희준62 ▲복성규74

▲서정환64 ▲서형래76 ▲성기훈75
▲성봉주69 ▲소병현62 ▲송일웅64
▲송형석65 ▲신동철63 ▲신명자60
▲신범영65 ▲신병찬64 ▲신언철63
▲신용국59 ▲신정식54 ▲신정인60
▲신중성65 ▲신하영63 ▲신형범78
▲신혜순51 ▲안정순43 ▲안종혁61
▲양창순71 ▲엄옥금59 ▲연대성64
▲예원혜65 ▲오기세60 ▲오두환73
▲유광원79 ▲유동원64 ▲유성렬69
▲유영목61 ▲유영선93 ▲윤근성76
▲윤동렬73 ▲윤재운75 ▲윤정일66
▲윤대익65 ▲이강석67 ▲이강준70
▲이근태71 ▲이기종60 ▲이달호50
▲이동호63 ▲이만형69 ▲이명순44
▲이배희55 ▲이병무62 ▲이시행45
▲이성관60 ▲이상재71 ▲이성현60
▲이수동76 ▲이승훈78 ▲이양자40
▲이영주56 ▲이옥자63 ▲이용정49
▲이용현57 ▲이원교67 ▲이유희68
▲이종덕64 ▲이종서77 ▲이종숙43
▲이종진77 ▲이준동66 ▲이준형77
▲이찬성73 ▲이춘근41 ▲이태근64
▲임찬희62 ▲임창원70 ▲임홍순69
▲장경순76 ▲장도영55 ▲장병덕67
▲장성희62 ▲전남석59 ▲전상열91
▲전신재65 ▲전종대79 ▲정규두38
▲정문용76 ▲정병희90 ▲정상윤78
▲정우상57 ▲정의포77 ▲정일영65
▲조숙상71 ▲조진현61 ▲지충성61
▲차준영79 ▲채수명66 ▲최광만69
▲최명진69 ▲최방지63 ▲최봉종70
▲최은규62 ▲최정숙44 ▲최진섭81
▲최재기91 ▲탁인자67 ▲하호백91
▲한 녀63 ▲한경수62 ▲한학선77
▲함오연74 ▲허 민80 ▲허 영63
▲허덕수67 ▲현승영49 ▲현승숙79
▲홍근일57 ▲홍동은41 ▲홍은경58
▲홍인기58 ▲홍종배72 ▲황규억74
▲황남룡39 ▲황선용61 ▲황성욱68
▲황정욱67

◇商科大學

▲강 영71 ▲강 욱60 ▲강승구65
▲강영준70 ▲강화희59 ▲강태석55
▲경연소62 ▲곽영홍62 ▲구명준68
▲권보상61 ▲김경민65 ▲김길환65
▲김두환56 ▲김부규60 ▲김상경67
▲김용표72 ▲김용렬53 ▲김은수55
▲김재관65 ▲김재진48 ▲김재현45
▲김정우69 ▲김정은56 ▲김정현63
▲김종호59 ▲김중수56 ▲김진주66
▲김진호58 ▲김창수70 ▲김철배53
▲김태경74 ▲나용배57 ▲노병태68
▲노창승65 ▲문운룡65 ▲민병훈60
▲박경철51 ▲박광규62 ▲박광보60
▲박노영61 ▲박복양44 ▲박종모56
▲박창복59 ▲박홍서53 ▲배종섭63
▲배지열57 ▲백창기65 ▲서강무62
▲서정호43 ▲성낙정44 ▲성락후69
▲소구영64 ▲소만호75 ▲손기창62
▲송원일75 ▲송인덕69 ▲송정위66
▲송화섭57 ▲신범식56 ▲신영균66
▲심재강70 ▲안영목61 ▲안희중65
▲양경환62 ▲여선선57 ▲엄수명67
▲염경균57 ▲오정현58 ▲오태렬49
▲우재구61 ▲원한영60 ▲유권상75
▲유대진56 ▲유영상71 ▲윤 효65
▲이경모56 ▲이규찬59 ▲이대용74
▲이도근55 ▲이상학63 ▲이석우67
▲이선호64 ▲이순석63 ▲이승우57
▲이양규72 ▲이용석66 ▲이원규61
▲이윤우70 ▲이정권62 ▲이정보66
▲이종오55 ▲이종용52 ▲이주희74
▲이찬구61 ▲이태규75 ▲이태용72

▲이태중55 ▲이한희58 ▲이형조59
▲이흥식60 ▲인수환58 ▲임병민61
▲임호윤72 ▲장기남68 ▲장안섭60
▲전상희65 ▲전유상56 ▲전재송57
▲전하길56 ▲정방우73 ▲정순엽73
▲정용익63 ▲정운찬70 ▲정의동72
▲정진택66 ▲정진택72 ▲정천봉67
▲정홍교74 ▲제환석74 ▲조학국72
▲주주섭64 ▲주찬선72 ▲지상진57
▲채수한60 ▲최동호71 ▲최명해72
▲최성주59 ▲최재현60 ▲최종식73
▲최주원64 ▲최처락58 ▲추수욱57
▲한봉희73 ▲한석정69 ▲한의수57
▲허도형69 ▲홍준기65 ▲황하현53

◇獸醫科大學

▲강두완63 ▲고영규62 ▲권종국56
▲권호윤62 ▲김선일70 ▲김영만62
▲김영철91 ▲김진명90 ▲김태원64
▲박내정67 ▲박민택55 ▲박용호78
▲박종명65 ▲성백관73 ▲송영보55
▲신도근65 ▲신문근60 ▲우영제68
▲원병희65 ▲윤석순64 ▲이규본65
▲이삼수69 ▲이정인76 ▲이정학67
▲이준섭58 ▲이진용93 ▲이택희73
▲주영국64 ▲최영식65 ▲최창열88
▲한수남53

◇藥學大學

▲곽영의65 ▲김 영77 ▲김기풍65
▲김수웅71 ▲김수진75 ▲김영준65
▲김의식66 ▲김인철64 ▲김정화61
▲김정희61 ▲김홍대59 ▲김화자55
▲나도선71 ▲노대준61 ▲민경원55
▲박명호57 ▲박성주65 ▲박수일69
▲박용준55 ▲박정섭51 ▲박종현49
▲박한일60 ▲배운도41 ▲서동화73
▲서성수57 ▲손선일64 ▲손정식78
▲송진홍66 ▲신완근79 ▲안현아89
▲오도근64 ▲옥 선72 ▲우용렬61
▲우창도51 ▲유도봉74 ▲유한호64
▲윤웅찬72 ▲윤유선90 ▲이상모59
▲이선구94 ▲이순호81 ▲이우영78
▲이은경88 ▲이태욱67 ▲이필영56
▲이혜숙78 ▲장덕기60 ▲장인수71
▲장정일70 ▲정춘희53 ▲주상섭69
▲최규팔74 ▲최진선55 ▲한상철70
▲홍기석57

◇音樂大學

▲강낙영72 ▲강정구69 ▲고원주96
▲김명규80 ▲김무영89 ▲김미경73
▲김영애71 ▲김영철62 ▲김완주90
▲김우진77 ▲김재은80 ▲김정수65
▲김중석73 ▲김현규64 ▲김형섭76
▲김홍식77 ▲김효순65 ▲김희자59
▲나광자64 ▲남수아92 ▲도완녀77
▲문명자68 ▲박미정79 ▲박은주82
▲박지영88 ▲박혜영83 ▲방효선74
▲백원정69 ▲백은숙87 ▲백의현65
▲서타목67 ▲송경희63 ▲송태근65
▲신상호74 ▲안종선80 ▲안혜정89
▲엄의경65 ▲우광재78 ▲유충렬65
▲윤진영68 ▲이경미83 ▲이선영90
▲이성혜81 ▲이수철68 ▲이영숙59
▲이영자60 ▲이용일61 ▲이유선88
▲이은용77 ▲이재원57 ▲이정순58
▲이종명69 ▲이창수71 ▲이한돈73
▲이화진73 ▲임경희70 ▲임승려77
▲임종배83 ▲임희정66 ▲장성덕64
▲전신주71 ▲전영혜67 ▲정재윤89
▲정혜원92 ▲조문자66 ▲조상현51
▲조창연71 ▲조학현65 ▲주용점71
▲한명희64 ▲한상우62 ▲현경실80
▲홍지영87 ▲황철익57

◇醫科大學

▲강지숙▲강홍모▲계수덕▲고 홍▲권기익▲권영소▲기만덕▲김기곤▲김기중▲김명아▲김민호▲김범용▲김봉석▲김성수▲김성수▲김순배▲김영택▲김용섭▲김용진▲김정재▲김종정▲김주성▲김철규▲김춘길▲김충은▲김충철▲김필수▲김한권▲김호성▲김희중▲나영호▲노상권▲노태성▲노효근▲명호진▲문영규▲문일영▲문채구▲문홍세▲민병섭▲민영일▲박길선▲박동현▲박영근▲박영수▲박영철▲박이철▲박인원▲박재홍▲박태식▲배진기▲변창세▲서광륜▲서길준▲서병태▲서정후▲서환조▲성용기▲송계승▲송제일▲신미자▲신봉하▲신원석▲심상운▲인태원▲양희우▲여봉구▲위성호▲유방환▲유영철▲유재훈▲유정현▲유현덕▲유형록▲윤능수▲은길상▲은세윤▲이강진▲이경옥▲이권전▲이규범▲이기린▲이문규▲이민성▲이병권▲이봉재▲이상일▲이선호▲이용일▲이용진▲이인식▲이재순▲이재순▲이종구▲이종호▲이진학▲이찬세▲이춘호▲이필한▲임승재▲임용철▲임채만▲장 광▲장승명▲장우영▲장진호▲전윤애▲정경해▲정규철▲정문현▲정운재▲정희연▲조병득▲조성근▲조성도▲조영기▲조일균▲주순오▲주인욱▲지석산▲차건원▲차인준▲채인영▲최덕영▲최시윤▲최정연▲최창운▲최충선▲최현규▲최형석▲한기준▲한동환▲한영표▲함정욱▲황대용▲황도영

◇齒科大學

▲강대준▲고백진▲김강용▲김건모▲김경남▲김관식▲김교식▲김기혁▲김병환▲김봉환▲김상철▲김선해▲김성곤▲김성룡▲김성용▲김영규▲김영균▲김영수▲김영수▲김원겸▲김원우▲김원표▲김유진▲김종태▲김종택▲김지호▲김진수▲김진태▲김충배▲김태인▲김현석▲김현진▲김훈재▲남태우▲노지섭▲목길수▲목성규▲문백섭▲민병무▲민병희▲박건배▲박경준▲박광선▲박기용▲박기욱▲박기호▲박용연▲박용한▲박원배▲박종만▲박주태▲박태선▲박태수▲박홍규▲박희운▲박희준▲배진척▲배효택▲백유선▲변호영▲상기중▲서성구▲설창환▲삼무경▲손호현▲신덕재▲신순일▲안복훈▲안상규▲안성훈▲안창영▲안재호▲엄태섭▲오기환▲오명희

▲오성진▲오인식▲오혜은▲우상두▲원문청▲유동수▲유세청▲유지은▲유하식▲윤대영▲이대관▲이문한▲이병윤▲이상훈▲이석우▲이선재▲이선형▲이성복▲이영림▲이완수▲이용덕▲이창순▲이학배▲이형구▲임광수▲임문식▲임병재▲임우하▲장도훈▲장병천▲장은하▲장대현▲장성화▲정영완▲정영한▲정의종▲정현석▲조민선▲조상래▲조영환▲조창홍▲조한국▲조한준▲주미희▲진기열▲최봉섭▲최운침▲탁미선▲하해근▲한 영▲한광수▲한금남▲한홍일▲한희성▲허정국▲현재만▲황 경▲황사철▲황정일

◇大學院

▲강길수▲강영진▲김규철▲김도현▲김상균▲김성례▲김성석▲김세재▲김인배▲김항목▲내병만▲박명호▲박복만▲박성호▲박익환▲손명환▲송홍환▲신응배▲유미란▲윤석준▲윤성호▲이철화▲이홍수▲임병민▲장승재▲정기화▲정성채▲정원박▲조태승▲진선주▲최정욱▲한상룡

◇經營大學院

▲김길영▲김연식▲배동훈▲이명재▲이종실▲전성용▲정홍길▲조한욱

◇教育大學院

▲이상길

◇保健大學院

▲권영호▲김상욱▲김운서▲김학영▲김흥은▲저은하▲송선대▲안상선▲유무현▲임완호▲정두채▲최진석▲홍정선

◇司法大學院

▲정덕장

◇新聞大學院

▲김희욱▲유종수

◇行政大學院

▲강윤원▲김경섭▲김규선▲김상진▲김성준▲김순성▲김윤근▲김호진▲김희동▲이대순▲이동춘▲이성기▲정강정▲조병환

◇環境大學院

▲이덕복▲이종일▲정병철▲최강립▲허일도

◇최고경영자과정

▲가갑손▲강 영▲강말길▲강성모▲강학중▲고용석▲고충남▲곽진훈▲권노갑▲권웅현▲기세만▲김 반▲김 훈▲김건중▲김교철▲김기원▲김동수▲김병오▲김병운▲김상봉▲김선제▲김성민▲김성중▲김성현

▲김성호▲김시영▲김영동▲김영환▲김용수▲김인규▲김재국▲김재욱▲김재철▲김정규▲김정수▲김정욱▲김정운▲김정재▲김주성▲김주한▲김준언▲김준호▲김진형▲김창희▲김철환▲김학권▲나승렬▲남중철▲도일규▲문성근▲문우행▲문창규▲민경관▲민명술▲박건작▲박병규▲박선희▲박성욱▲박순관▲박인중▲박종구▲박종인▲박진수▲박춘택▲박학경▲박환규▲배승엽▲백복기▲백영기▲백운광▲백종만▲변자섭▲변정주▲서영하▲서진하▲성승모▲성하룡▲손정수▲손창수▲송문호▲송언기▲신대진▲신달업▲신성택▲신우철▲안갑원▲안과순▲안영복▲안용태▲양종민▲엄대용▲엄정태▲오도영▲오동빈▲오순택▲오인택▲오일호▲오태수▲육기진▲우영태▲원대연▲유건수▲유병진▲유부용▲유양수▲유인학▲유재명▲유해준▲윤승혁▲윤종수▲윤종천▲윤종호▲은승기▲이강남▲이광우▲이광찬▲이근재▲이대봉▲이득호▲이만희▲이맹기▲이병하▲이봉훈▲이상온▲이상완▲이상일▲이상재▲이성득▲이성철▲이세락▲이소동▲이수증▲이순형▲이승준▲이시용▲이영준▲이영종▲이원표▲이은선▲이정성▲이정식▲이주현▲이태교▲이현도▲이회림▲이희평▲임 언▲임영훈▲임인재▲임충현▲장경작▲장기호▲장남진▲장석웅▲장순상▲장원리▲장학세▲장훈수▲장희수▲장희정▲전봉우▲전태성▲정 명▲정국성▲정덕상▲정명섭▲정병렬▲정상용▲정승열▲정재성▲정태일▲정필모▲조달호▲조동현▲조상연▲조양호▲조영진▲조용호▲주창성▲주태홍▲진재순▲최경희▲최권영▲최수부▲최윤신▲최종식▲대석배▲한상덕▲한수도▲한영철▲한준수▲허경민▲허경욱▲홍성열▲홍종대▲황인수

◇최고산업전략과정

▲강명영▲강용석▲강희영▲고귀선▲고상인▲권영원▲권영후▲김기원▲김상래▲김석준▲김성근▲김성길▲김을식▲김익래▲김인수▲김재록▲김정웅▲김정중▲김진왕▲김학형▲김홍근▲김희동▲노완구▲류복석▲박규영▲박기점▲박정오▲박환기▲백정홍▲변대환▲서영배▲서영복▲서영식▲안홍석▲양승희▲오시덕▲원종갑▲윤의한▲이건구▲이동건▲이상철▲이상희▲이영우▲이영자▲이용완

▲이의현▲이재천▲이창섭▲이희평▲임석재▲전종윤▲정승일▲정용우▲정재룡▲정창현▲조시영▲조원호▲조인형▲주영현▲채대석▲최동수▲최순범▲최웅진▲최일웅▲최재영▲최재오▲최정남▲한도식▲한문식▲황이남▲황해진

◇국가정책과정

▲곽철중▲권영해▲김 규▲김남경▲김상민▲김석균▲김영수▲김운환▲김유복▲김윤세▲김정웅▲김종배▲김찬희▲김형성▲남상준▲두진문▲문연식▲문장인▲민경현▲박만운▲박명서▲서정권▲서정만▲손일권▲송점중▲신재기▲심광섭▲안순길▲안중기▲안필준▲오영우▲오자현▲오정숙▲유재필▲윤용인▲이강연▲이건모▲이남영▲이무영▲이범준▲이수부▲이종성▲이진삼▲이희평▲임동성▲장보교▲전경애▲전병용▲정진호▲조병준▲조영훈▲조용안▲주문영▲최기문

▲최득록▲최봉인▲허위구▲홍성덕

◇고급금융과정

▲강성구▲고경일▲김광호▲김진오▲박인규▲박효원▲송영규▲이영태▲이익수▲임천호▲정원봉▲정철수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강한옥▲구자목▲권경택▲김동훈▲김상수▲김성대▲김종천▲김창섭▲김홍선▲류진규▲문명덕▲박종탁▲서윤호▲송기순▲신관순▲안무경▲엄택열▲유수형▲이한주▲임광수▲임장산▲정인택▲정희관▲조규식▲최광석▲최병하▲최출락▲한갑수▲한재웅▲황경태

◇가정간호수습과정

▲박혜숙▲정경란

◇해양정책최고과정

▲강철민▲서정호

합계 : 124,604,360원
통계 : 301,770,420원

<지면관계로 도시환경교우정책과정, 보건의료정책과정 회비 납부하신 분은 다음 호에 게재>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1년 5월 발급 회원 명단)

개 인

◇人文大學
▲김수용▲성은주▲신동진▲이세영▲이승섭▲이제승▲이혁준▲임창균▲조인식▲최용규

◇社會科學大學
▲노충환▲박종원▲손주영▲송현욱▲장욱진▲정성국▲조한욱▲최영환

◇自然科學大學
▲김상운▲김선기▲김승모▲이종환▲장영재

◇家政大學
▲배수향

◇經營大學
▲성태훈▲손현석

◇工科大學
▲고정환▲권오중▲권철홍▲김도현▲김병성▲김인성▲김종신▲백영환▲심정섭▲오경환▲이기재▲이수환▲이창훈▲이홍진▲정수근▲정영근▲주성재▲최왕돈▲최정식▲하성욱

◇農科大學
▲강희웅▲계승학▲공대희▲김성훈▲김세함▲김용민▲송민섭▲양인목▲유혁근▲이상봉▲이석재▲이운규▲이지용▲이창환▲임춘봉▲장영진▲정현석▲최종민▲최준호▲최창호

◇文理科大學
▲변광수▲양재섭▲장무익▲고영주▲정의철▲정현규

◇美術大學
▲최홍철▲현지연

◇法科大學
▲오동섭▲유지근▲이상래▲이육재

◇師範大學
▲김지영▲서택준▲성봉주▲안영열▲전현애▲정봉섭▲조형우▲황현식

◇獸醫科大學
▲조동진▲한수남

◇藥學大學
▲곽상훈▲구태성▲조현민

◇音樂大學
▲애리화▲이승권▲임정민▲황응준

◇醫科大學
▲김대영

◇齒科大學
▲강나라▲임찬용

◇大學院
▲이주용▲조현래

◇經營大學院
▲박정완▲이운재▲이진석

◇보건의료정책과정
▲김운하

문학

新刊

■ 파브르의 눈

—林億圭 著



청운시문학회 회장, 한국수필 문학진흥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云潭 林億圭(57년 師大卒)동문이 그 동안 발표했던 수필들을 모아 엮은 두 번째 수필집.

군복무 중일 때 어머니의 성화로 이뤄진 부인과의 만남을 회상한 「45점의 행복」, 맹장염을 술병으로 오진하고 당뇨 검진 받으러 갔다가 심장 조영시술을 받은 이야기 등 술과 오진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술이 뭐길래」 등 57편의 글을 수록했다. <선우미디어刊·값8,000원>

■ 아이 러브 폴리스

도둑질의 사회학

—金重謙 著



인터폴 부총재인 金重謙(77년 人文大卒·대통령 치안비서관) 치안감의 경찰이야기.

「아이 러브 폴리스」에서는 81년 치안본부 인사교육과 경정으로부터 시작해 영등포 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담았다.

「도둑질의 사회학」에서는 대표적인 범죄행위인 도둑질을 비롯해 소매치기, 도청, 절도범 등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좋은이웃집刊·각권 값7,000원>

(정리=安興燮기자)

동문의 소리

미터제 시행·과학적 사고

徐康和(74년 新大院卒)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보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계량법의 미터제 실시 촉진 업무를 추진 중, 골프업계와 정부 내 타 부처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고 한다. 농림부나 건설교통부 실무진들은 「긴급 중대 업무가 태산인데, 사소한 것을 갖고 괴롭히느냐!」하는 불평이 높다. 산업자원부의 권면논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가 전체 이익이니 법정제도로 따르자」고 하는 설득이라, 긴박한 명분도 없다.

미터제는 61년에 계량법으로 공포된 바 있으니 유예기간이 40년을 넘었고, 본시 자연과학적 연원을 가진 합리제도이다. 세계화 조류의 오늘날은 晩時之數이 없지 않다. 더구나 근자에

자연과학적 素養 진흥이 國是라 할 만한 시대 요청이 돼왔다.

金壽煥추기경이 과학교육진흥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근년의 우주과학 및 정보화기술의 비약에 따라 세계 CGS과학단위 기구와 국제표준기구(ISO)와의 유대를 가진 OECD 가맹국인 한국의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미터제에 관한 인식공백이나, 기초 과학 소양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실언(사소한 것?), 특히 83년 무렵 막대한 국고 지출로 부동산 등기 등 公簿의 표시를 「평」에서 「평방m」로 환산 개체한 미터제 연혁도 모르고 있는 주무당국자 등등.

우리 지식인들의 후진성에 아

연실색할 뿐이다. 당국은 금년 7월부터 지방일선 공무원을 풀어서 단속에 나설 작정이라고 하나, 국민의 자각과 자진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민·관 모두가 미터제의 시발이 보편적·객관적·자연과학적 발상에 말미암은 것을 성찰 터득하고, 미터제 생활화와 함께 과학적 사고 성향도 함양해야 하겠다.

우리는 옛날의 한 근의 무게, 한 자의 길이가 오늘날 그것과 일치하는지 의문일 때가 많다. 그러나 미터제는 세계 각 가맹국에 미터 原器가 배포되어서 세계 공통의 典據가 불변하다. 1미터 길이의 근거는 지구의 원

둘레를 4만km로 전제하고 그 4천만 분의 1의 길이로서 정했다. 정확한 미터자만 있으면 면적과 부피(입방m)는 규정된다. 10cm의 3제곱 부피를 1리터로 정하고, 섭씨 4도의 물 1리터의 무게를 1kg으로 규정했다.

물의 빙점을 0도로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한 섭씨 온도계처럼, 일정량 물의 부피에서 무게의 세계로 연결한 것이 미터제의 과학성이다. 그 합리성에서 과학마인드를 갖자.

36計의 진정한 교훈이란

徐學秀(88년 經營大卒)마일스톤벤처투자(주) 사장



큰 것이 작은 것보다 더 낮고 화려한 것이 소박한 것보다 더 낫다고만 생각했던 시절, 참된 함은 오히려 온유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시절인 중학교 1학년 때 난 그분을 만났다.

정년퇴임을 한두 해 앞두고 평교사로 재직하고 계셨던 그 선생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파상적인 개념들을 아주 조용하게, 그렇지만 빼어난 한 두 마디를 통해 새로운 가치로 바꾸어놓곤 했으며, 난 그분이 한 번씩 던지는 화두를 며칠씩 가슴속으로 되새김질하며 자그

마한 희열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시간 종료 5분을 남겨두고 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오늘은 또 어떤 세계로 우리들을 초대할지 잠시 설렘이 흐르고...

『36計를 아는 사람?』

그 당시 홍콩 영화배우 성룡의 인기가 매우 높았던 만큼, 우리는 중국 무술에 대해 귀동냥 정도는 해본 적이 있었으므로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고 그 중 한 친구가 대답했다.

『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1計부터 36計까

지, 36가지의 무술을 모두 합친 36計라는 중국 무술 중 마지막 36計에 도망치는 무술을 포함시킨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셨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선뜻 대답하려 들지 않았다.

『35計까진 싸움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무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36計는 下山 직전에 무인의 인간 됨됨이를 완성시키는 무술이기 때문이지. 무술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해치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술 사용을 함부로 남발해선 안되는 것이지』

대의명분에 맞지 않는다면 상

대방을 이길 수 있을 때에도 자신의 몸을 숨겨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무인에게 요구되며, 그러한 결과로 세인들로부터 비겁하다는 놀림을 당할지라도 대의를 위해 이를 묵묵히 감수하는 자만이 하산할 자격을 갖춘 진정한 무인이라는 그 때 그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음악을 번역하는 사람들

崔恩蘭(92년 音大卒)바이올리니스트·음악 칼럼니스트



『음악을 하십니까? 그럼 무슨 악기를 연주하세요?』

대개의 경우 「음악을 한다」고 말하면 무슨 악기를 연주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물론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 특정한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연주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악기

연주만이 음악을 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곡가와 음악을 감상하고 즐기는 음악애호가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음악을 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악에 대해 말하고, 음악 작품이나 연

주에 관해 평을 쓰는 사람들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가?

음악가와 작가 사이에서 어중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은 음악 칼럼니스트 또는 음악 평론가라 불리거나, 약간의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경우에는 음악학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

니기도 한다.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지도 않고 음악을 만들어내지도 않지만, 분명히 음악을 하기는 한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이 다른 음악인들과 구별되는 것은 전문적으로 음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글로 전달한다는 데 있다. 애매한 음악 언어를 명확한 글로 옮기는 사람들. 그들은 일종의 번역가인지도 모른다.

동문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시오.

☎ 121-8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동창회 편집부

전화 : (02)702-2233 FAX : (02)703-0755 E-Mail : snua@korea.com